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
15
년 2
월
석사학위논문

2015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 연구

최인호 초기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혜진

성 김
혜
명 진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 연구

A Study on Aspects of Power in
Choi In-Ho's Early Novels.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혜진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권력의 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 형 중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혜 진

김혜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혜영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문석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형중 (인)</u>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Power in Choi In-Ho's Early Novels

Kim Hye Jin

Advisor : Prof. Kim Hyoung Joong,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s everyone knows, it was in 1970s that Korea was urbanized in a systematic and rapid way. A number of national projects were achieved based on the sacrifice of Korean. Because of the sacrifice, the Popular Literature, which was the mainstream of this time, addressed power as the resistance from the subordinate class rather than the domination from the ruling class. Despite this, it was not the time simply called as the time of totalitarianism or state violence due to mixed elements and aspects, and this dichotomous view on power left many inexplicable surplus areas. Choi In-Ho's early novels, which dealt with the inexplicable areas, focused on the power from micro view in contrast with the macro view from Popular Literature, so that they revealed the deep aspects of power within a person's daily life. Disciplinary power and bio-power were shown through signs especially in 'Probation Patient', 'Two and a Half' and 'Savage' and this was considered pioneering work at the time. Thus, this article will not only analyze and identify the aspects of micro-power in Choi In-Ho's early novels, but also focus on the phenomenon in which public space and private space start to blur especially in 'Masked Ball' and 'Scary Plural', analyze this in relation to the change of governmentality in that period, and propose a new possible appreciation on Choi In-Ho's early novels.

목 차

Abstract	1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4
II. 일상영역과 미시권력	10
1. 신체와 규율권력	10
2. 정상성과 생명권력	18
III. 공공영역과 통치성	30
1. 언론의 유희성과 통치성의 변화	30
2. 학생운동의 허위성과 통치성의 변화	38
IV. 결 론	49
참고문헌	51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도시화가 체계적이고 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시기는 1970년대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와 유신체제는 1960년대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전인구의 50%정도가 도시에 몰려 사는 도시형 국가로 탈바꿈”시켰다.¹⁾ 한국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의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으나 그에 반해, 지금까지도 소위 ‘천민자본주의’라 불릴 만큼 유래 없는 정신적 빈곤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다. 이 정신적 빈곤은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와, 주체성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앓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인간성의 소멸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산업화로 얻은 물질적 부는 지배계층만이 독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때문에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계층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 영향을 받은 민중문학이라는 큰 흐름은 권력을 지배층의 지배와 피지배계층의 저항으로 이분화 해 바라보고 있었다. 대개 1980년대를 민중문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보지만, 그 시작은 1970년대 민중의 저항을 그리기 시작한 작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민중문학은 민중이라고 칭할 수 있는 주체, 즉 노동자, 농민을 다루고 있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체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에 저항하는 서사가 특징이다. 이때 노동자나 농민은 개인으로 소설에 그려진다고보다는 집단이나 계층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이 시기에 주류는 저항의 서사를 띠는 소설들이었으며, 피지배계층의 저항을 다루는 것이 본격문학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주 배경으로 소외된 주체의 일상을 소설화했던 최인호는 동시대 활동했던 황석영, 조세희, 윤홍길 등으로 대표되는 저항성 짙은 민중소설 작가의 반열에 속하지 않았으며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박정희가 집권했던 1970년대는 단순히 전체주의적 국가 폭력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양상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시행했던 정책들과 국가권력의 특성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혼

1)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 제27호, 2012. p.116 재인용.

잡성을 파악하는 민중문학의 독법이 권력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본의 아니게 많은 잉여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최인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양상들은 이 잉여에 속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최인호의 초기 소설은 산업화의 부작용과 인간의 소외를 반영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저항의지를 소설을 통해 표현하지 않았다. 최인호 소설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거시적인 이분법적 구도로 파악되지 않는 소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평자들로부터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조선일보>에 『별들의 고향』이라는 대중성 짙은 소설을 연재하면서부터는 ‘호스티스 작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몇몇의 평자들에 의해 한국 모더니티 문학의 기수, 청년 문화의 기수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최인호가 점차 영화계에 발을 들이면서 대중소설작가, 통속작가라는 꼬리표가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문학작품은 작가가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한 정신적 산물이며, 작가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사람의 주체이다. 최인호 역시 박정희의 통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 사람의 국민이었으며, 그의 소설 곳곳에는 다양한 양상들이 혼재했던 70년대의 모습이 담겨있다. 다만 주류를 이뤘던 민중소설 작가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권력의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면모에 집중했다면, 최인호는 그들과 달리 미시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권력의 양상을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바라보고 있다. 민중소설 작가들이 민중의 저항을 통해 쟁취할 전망과 유토피아를 제시했다면, 최인호는 그렇지 않다. 어떤 전망의 제시 없이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최인호의 소설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껏 최인호에 대해서 통속작가라는 선입견을 버리지 않은 일각의 평가는 그의 초기작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특징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인호의 초기작은 이분법적인 거대담론의 관점에서 포착되지 않는 미시적인 차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소설화된 인물들과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권력의 양상을 포착해 보여주고 있고, 이 양상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권력의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구도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까지 이어지는 박정희의 통치를 바라보는 최인호의 세계인식과 소설에 포착된 권력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시대적 상황과 함께 그 의미를 밝혀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방법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관점,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관점, 자본주의와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하는 관점, 대중성과 문학성 사이의 이분법적 분류 구조의 화해를 주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 최인호 소설을 한국의 모더니티 문학으로 보고 있기도 하며, 최인호 특유의 상징적인 문장에 집중하고 또 그의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대중문화의 해석을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생명정치 관점에서 최인호 초기 작품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동하는 최인호의 「술꾼」(1970), 「침묵의 소리」(1971), 「처세술개론」(1971), 「황진이」(1972), 「무서운 복수」(1972), 등을 평하면서, 성숙한 반성이 아닌 위장된 반성만이 소설 전반을 흐르고 있으며, 인물들을 통해 소심하고 병적인 도피 성향과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²⁾ 비슷한 맥락에서 이보영은 환상이 허무로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³⁾ 이는 당시 문단의 평가기준이 부조리에 대한 저항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잘 보여주는 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 못지않게 그 당시에 최인호의 소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평자들이 있었다. 김현은 최인호를 도시문학가로서 인정했으며 소설에 나타난 허무주의적인 시선을 현실 비판적인 것으로 평가했다.⁴⁾ 물론 이러한 평가는 최인호의 초기 작품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본격적으로 신문연재소설을 쓸 무렵에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자취를 감췄다.

시간이 흘러 자본주의 질서가 사회를 장악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도시에서 소외당한 인물들을 표현한 최인호의 소설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오창은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인호의 작품을 당대의 도시적 감수성의 반영이라는 전제하에 분석을 시도한다. 도시적 공간에 대해서, 또 사적인 자유에 대해서 최인호의 인물들이 보이는 반응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⁵⁾ 이평진 역시 도시 공간에

2) 이동하, 「도피와 긍정」, 『타인의 방』, 민음사, 2005.

3) 이보영, 「환상적 리얼리즘의 허실-최인호론」, 『현대문학』 제301호, 1980. 1.

4) 김 현, 「재능과 성실성」,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00.

5)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2집, 2004

집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최인호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공간을 위상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70년대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을 가능케 하는 본질적인 원리와 편입되는 공간, 그에 따른 주체의 반응과 공간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⁶⁾ 두 연구 모두 공간과 인물이 맺는 관계와 그로 인해 변해가는 의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계획과 분할 질서의 연원을 정치경제학에서 찾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지배한 도시적 공간의 특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신체나 공간에 작용하고 있는 미시적인 차원의 질서나 권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종택은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을 공간정보보다는 인간 소외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으며, 최인호에 의해 1970년대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인간적 삶의 훼손, 비인간화가 형상화되었다고 보고 있다.⁷⁾ 안남연은 비슷한 맥락에서 최인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1970년대 복잡했던 현대사와 도시발전이 가져온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소설에 반영했다고 평한다. 구체적 요소로 도시에서의 고독과 소외, 욕망과 허무의 관계, 서구지향적인 문화 수용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녹아 있는 최인호의 소설은 대중성과 문학성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의 화해를 가져왔다고 본다.⁸⁾ 성민엽 역시 대중소설과 순수문학의 이분법적 시선으로 최인호의 소설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⁹⁾ 본 연구자도 안남연과 성민엽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소설이 그 시대정신과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문화의 유입과 성적인 것의 점진적인 개방 등 70년대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분위기에 맞물려 최인호 소설이 누린 대중적 인기를 분석하는 것은 최인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대중작가라는 선입견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으로 볼 수 있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학적 귀족주의 때문에 최인호의 소설들이 평가절하 되었다는 견해는 초기작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후기작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와 퇴폐성에 대해서는 비판할 점은 지적한 뒤에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6)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7) 서종택, 「해방이후의 소설과 개인의 인식-시기원, 김승옥, 최인호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8.

8)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9) 성민엽, 「불화와 허위의 세계의 비극성」, 『다시 만날 때까지』, 나남, 1987.

김인경 역시 평자들로부터 ‘현실도피’나 ‘대중화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최인호의 문학적 위상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김인경은 최인호의 소설적 시도들을 “끊임없이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진정한 유토피아의 원형”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70년대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모더니즘적 저항의 서사로 보고 있다.¹⁰⁾ 최인호의 소설이 70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최인호 소설에 깊숙이 자리한 허무의식과 비관성에 대해서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며, 저항의 서사라는 전제는 이분법적 구도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이분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권력의 양상과 비관적 세계인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 최인호 소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유토피아를 제시하지 않는 결말을 맺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오현봉은 최인호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허무의식과 관능이 우리 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측면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¹¹⁾ 나병철 역시 자본주의적 도시화가 가져온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인물들이 주체의 포기나 소외를 경험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최인호 소설이 잘 담아내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²⁾ 문흥술은 이런 면을 높이 사면서도 산업화와 관련한 양상을 형상화 한 것이 거의 모든 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내포적인 깊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했다.¹³⁾ 이재선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가 가져온 변화를 가정의 변모로 꼽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거적 실태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을 최인호 소설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¹⁴⁾ 이 연구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의 부정적인 측면과 주체가 받는 영향을 위주로 연구했는데, 당시 도시화를 주도했던 박정희 정권의 통치성에 대한 언급이나, 1970년대를 단순히 국가적 폭력의 전체주의 시대로 파악할 수 없음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또 이런 접근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나는 주체의 소외나 허무의식 등을 주체성의 포기나 세계에 대

10)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9, 2007.

11) 오현봉, 「최인호 연구시론」, 『어문연구』 68, 일조각, 1990. 12.

12) 나병철, 「최인호론-비동일성의 시선과 낯설게 하기」, 『현대문학의 연구』 11,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13) 문흥술, 「외연적 넓이의 확장과 내포적 깊이의 부재, 그리고 70년대적인 문학」, 『한국 소설 문학 대계』 58, 동아출판사, 1995.

14) 이재선, 「집(家)의 시간성과 공간성-가족사 소설과 집의 공간시학」, 『인문연구논집』 20,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한 주체의 패배로의 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 뿐 최인호가 바라보는 세계가 우리 세계 그 자체임을 간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남진우는 최인호의 소설이 독자들과의 교감 속에서 논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것은 최인호의 모더니티가 관념적, 수사적 형태를 벗어나 현실의 징후로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⁵⁾ 이는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한 접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현실의 비극성과 그것을 바라보는 최인호의 비관성을 구체적 현실의 반영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도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인호의 초기 중단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¹⁶⁾ 기존 연구에서는 1970년대 혼재된 권력의 양상에 대해서는

15) 남진우, 「현대의 신화-최인호 문학의 기원-」,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02.

16) 강태선, 「겸허의 수행상에 대한 연구: -최인호 「길 없는 길」의 겸허 수행상 형상화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2010.

곽상순, 「서사의 반전과 욕망의 역설: 최인호의 <술꾼>과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 『국제어문』 34, 2005.

_____, 「탈주체적 등장인물 연구: 최인호와 김영하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5, 2007.

권은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9.

김미지, 「전쟁과 야만의 시대를 응시하는 70년대적 방법-최인호론」, 『한국 현대소설이 걸어온 길』, 문학동네, 2013.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8.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 최일남·이동하·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 2009.

김은미, 「아이러니를 통한 최인호 소설의 ‘애늬은이’ 인물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2012.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조세희, 최인호,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성대 박사논문, 2008.

김주연, 「최인호의 관능이 의미하는 것」, 『타인의 방』, 예문관, 1977.

_____, 「70년대 작가의 관점」, 『신동아』, 1974. 11.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52, 2013.

김원규, 「1970년대 최인호·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과 신체의 의미」, 연세대 석사논문, 2000.

김종욱, 「근대화의 유희와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자기정체성에 대한 불안 보여 주는 최인호의 작품세계」, 『문학사상』 329, 2000.

김진기, 「최인호 초기소설의 의미구조」, 『인문과학논총』 35, 2000.

김진형, 「최인호 소설 연구: 인물과 세계의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6.

김치수, 「소시민적 삶의 우울한 저항」, 『허수아비』, 열림원, 1993.

김태윤, 「최인호의 1970~8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된 인물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2010.

김택중, 「최인호의 <술꾼>에 나타난 부조리한 세계」, 『비평문학』, 2003.

김환옥,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연구: 성과 권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제대 석사논문, 2004.

노대원,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10.

노지연,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개인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2012.

문재원, 「최인호 소설의 ‘아동’ 연구」, 『현대소설연구』 28, 2005.

박찬효, 「최인호의 1960년~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

이분법적 구도를 취하거나 하나의 키워드로 조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본 연구자가 집중하고자 하는 미시적인 차원에 놓인 권력의 양상과 그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몇몇의 논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형중의 평론 「긴급조치 시대의 ‘웃음’」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미시적인 권력의 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권력”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구성이 인정된다. 최인호의 허무주의와 바보스러운 인물들로부터 저항성을 포착해 내고 있다.¹⁷⁾ 여기에 덧붙여 197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 인간의 소외와 물화 같은 양상이 최인호 소설들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음이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최인호의 초기작 중 「타인의 방」을 제외하고는 많은 문제작들이 문학사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음을 아쉬워하며, 최인호의 심리주의적이고 미시적이며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초기작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 현대소설연구』 54, 2013.
- 박필현, 「“꿈의 70년대”의 청춘, 그 애도와 위안의 서사-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6, 2014
- 변지연, 「1970년 안팎의 최인호, 혹은 ‘반-잉여역압’적 관능과 환상: 단편 <2와 1/2>, <사행(斜行)>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8, 2004.
- 서덕순, 「‘자기서사’ 발견과 동일성 회복의 글쓰기: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연구」, 『한국문학논총』 65, 2013.
- 소영현, 「‘스스로 희생자 되기’ 혹은 견담의 서사」,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 2005.
- 송은영, 「문학과 교육: 1970년대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최인호의 <미개인>과 <여행연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2011.
- 오생근, 「개인의식의 극복: 황석영 저 객지·조해일 저 아메리카·최인호 저 내 마음의 풍차<서평>」, 『문학과 지성』 16, 1974.
- 이선미,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 24, 2010.
- 이영민,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현대사회와 인간유형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진, 「최인호 중단편 소설의 인물연구」, 광주여대 석사논문, 2005.
- 이현진, 「최인호 소설의 도시 공간과 주체의식 연구: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13.
- 이희경, 「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5, 2012.
- 장세진,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8.
- 정동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미 분석: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8, 2001.
- 정재원, 「일탈과 수락-최인호 초기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원우론집』, 1996. 2.
- 채호석, 「억압된 것의 귀환-사물화의 악몽을 묘파한 <타인의 방>」, 『문학사상』, 2000. 3.
- 최미진, 김정자, 「한국 대중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김말봉과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어문학』 89, 2005.
- 최상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 황도경, 「물화의 공포와 유혹-최인호의 <타인의 방>」, 『문학사상』, 1999. 3.
- 17) 김형중, 「긴급조치 시대의 ‘웃음」, 『견습환자』, 문학동네, 2014.

하고 있다. 하지만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권력의 혼재양상들 중 규율권력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그보다 생명권력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 풀어내다 보니 다른 양상들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는 이 해설의 논지를 참고하여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권력의 양상의 규율권력적 측면, 생명권력의 측면, 통치성 변화에 따른 공공영역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II장에서 미셸 푸코가 권력이론을 바탕으로 최인호 초기 소설에 나타난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견습환자」와 「2와 1/2」를 통해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물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규율권력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견습환자」, 「2와 1/2」 그리고 「미개인」을 통해 생명권력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60~70년대 통치성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당시 사회 상황과 결부시켜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가면무도회」를 통해 언론이 유희성을 띠게 된 연유와 함께 두 영역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무서운 복수(複數)」를 통해 학생운동의 장을 압도한 사적 영역과 점점 공공 영역이 소멸해 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 일상영역과 미시권력

1. 신체와 규율권력

최인호 소설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일상의 범주와 개념에 대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상은 하찮은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문제를 떠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쇄관계를 포함한다. 사건들의 연쇄관계는 반복적이며 연속적이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반대로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하지 않아야만 하는 일 등이 온갖 다양한 일들이 일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의 일상은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면서부터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구성된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일상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일상은 어떤 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제의 의도에 맞게 직조·발명 되었다.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반복적인 행위에 종속된다. 일상은 원래는 비밀상적이었던 것들의 일상화 작업을 통해 구성된다. 생존의 문제는 필연적이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가능하도록 하며 상시적으로 신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권력에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

권력관계 속에 기입되어 있는 장치들과 일상이 주고받는 영향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한편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조직·관리·통제하는 가시적인 장치들의 작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가시적인 장치들의 작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장치 자체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이다. 장치는 일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권력의 의지와 연관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촘촘하게 연결되어 구체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가시적인 장치의 예로는 학교, 병원, 군대 등이 있고 비가시적인 장치로는 제도, 규칙, 담론, 지식 등이 있다. 이때 장치들에 의해 주체에게 가해지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힘은 규율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푸코에 의하면 규율권력은 신체를 직접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길들이는 것이다.¹⁸⁾ 규율권력은 주체를 뚜렷한 목적을 띤 사회에 필요한 이상적 신체가 되도록 길

18)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바로 ‘규율(disciplin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216쪽.

규율은 정상화를 시행한다. 먼저 개인, 장소, 시간, 몸짓, 행위, 조직을 분석하고 분해한다. 둘째로 포착된 요소를 목표에 입각해 분류한다. 셋째로 최적의 사열·배열을 확립한다. 넷째로 규율은 점진적인 조련절차와 항구적인 통제수법을 정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분할한다. 이 규율적 정상화에서 근

들이게 된다.

주체의 신체는 일상생활의 영위를 통해 길들여지게 된다. 이 장치들의 네트워크로부터 영향을 받아 직조된 개개인들의 일상 역시 필연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일상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상태로 조성된다. 이때의 지향점은 권력이 지향하는 바와 연관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시킬 이상적인 신체를 생산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지향점은 국가를 개혁하려거나 국가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주체에게 필연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국가라는 체제 아래서 기본적인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간에 권력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순종하는 신체로 길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잘 길들여진 신체는 정상적인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분류되어 권력에 의해 계속적인 훈련, 훈육을 받게 되거나 격리조치 되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규율권력이 국가를 유지하는 충실한 권력인 한 인간의 신체는 그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권력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¹⁹⁾

최인호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일상은 대부분이 앞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최인호의 인물들은 권력에 의해 조성된 일상과 그 억압에 불만을 가진 상태가 많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견딜 것을 강요당한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일련의 인물들의 모습은 권력이 지향하는 바에 자신을 쫓아 맞추려다 부작용을 앓는 것으로 보인다. 바쁘거나 혹은 한가한 그들의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권태감과 그 원인은 그들이 영위하는 삶의 목적이 스스로의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일상은 스스로의 것이 아닌 상태이며, 권력에 의해 그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병원, 군대, 학교 등의 통제 가능한 공간 안에서 인물이 머무는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인호의 재 등단작인 단편 「견습환자」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일상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 소설에서 최인호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조성된 일상과 병원에서의 규율에 의해 직접적으로 길들여지는 신체를 문제 삼고 있다. ‘나’의 입원부터 퇴원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주된 서사를 이루고 있으며 입원생활과 그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를 자세히 서술하

본적이고 일차적인 것은 규범이다. 따라서 규율기술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상화라기보다는 규범화다.
 미셸 푸코, 오르트망 율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91~92쪽 참조.

19) 미셸푸코, 오생근 율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217쪽.

고 있다. 고열에 시달리다 제 발로 병원을 찾게 된 ‘나’는 입원 절차를 받는 동안에는 제법 농담까지 해가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병원으로부터 관리되어야 할 환자로 규정된 순간부터, 병실에 명패가 걸린 순간부터, 또 몸에 맞지 않는 수의(囚衣)같은 환자복을 입고난 뒤부터 갑자기 몸이 아파온다.

‘나’는 병원에서 주는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과 약을 먹고 지내며, 되도록 병색을 완연히 드러낸 채 오전 회진을 기다린다. 매일 오전 아홉 시라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는 회진은 ‘나’의 일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본래 병원은 그 기능에 따라 수술실, 입원실, 응급실 등의 공간이 분할되어 있다. 병원에서의 공간분할은 신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산에 따른다. 분할된 공간에 따라 시간 역시 효율적으로 운용되는데, 이 안에 놓인 신체는 규율권력에 장악당하게 된다. 개인의 신체는 규율권력이 짜 놓은 시간표에 따라 권력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특정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된다. ‘나’의 경우 건강한 신체라는 이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 관리된다. 자본주의가 금전을 기준으로 인간을 평준화시켰다면, 의학지식은 건강함을 기준으로 인간을 평준화시킨다. 평준화는 개별적이고 특정한 가치를 지닌 대상들을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때문에 대상들 간의 차이는 봉합되고 서열화 수치화 등이 가능해진다.²⁰⁾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런 특징을 띠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과 분리시켜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 한편에서 의사와 간호원은 환자들의 병세를 검사하고 기록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환자들이 있기에 병원에서의 규칙은 유지된다.

그러다가 나의 관심 대상을 의사들에게로 돌려버렸다. 그들은 모두 수업을 바짝 짊어서 동안(童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육상 선수처럼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햇볕 잘 드는 마당에 일렬 행대로 늘어세우면 그들의 얼굴이 모두 알루미늄 식기처럼 반짝반짝거릴 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깔 없는 테를 두른 안경 밑으로 눈빛을 번득이면서 병동을 오가고 있었다. ...중략... 언제나 그들의 곁에선 약품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

20) “규율은 서열의 기술이고, 배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그것은 여러 신체를 한 곳에 뿌리박게 하지 않고, 분배하여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순환하게 하는 위치 결정에 따라 신체를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미셸푸코,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230쪽.

들의 회고 투명한 손가락은 햇살 속에서 메스처럼 번득이곤 했다. 그들의 깨끗이 세탁한 가운을 보노라면 주사액이 통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정밀성 같은 것을 느껴야 했다.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14쪽, 강조는 인용자)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혹 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변 하사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16쪽. 강조는 인용자)

‘나’의 눈에 의사와 간호원들은 지적인 냉소를 띤 인물들로 비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백혈구”, “강력한 항생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인간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가 관찰한 간호원과 의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만 이성적 판단 하에 실시하는 기계적인 분석과 치료 행위들뿐이다. 부산스레 병실을 오가는 의사와 간호원은 마치 균을 밀어내려는 일에만 열중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 같은 존재들로 보인다. 의사나 간호원들 모두가 어떤 개상도 없이 비슷한 표정과 차림새,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 기계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사실 이들과 ‘나’는 모두 규율권력의 영향 하에서 목적에 맞게 짜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 속의 존재들이다. “미시적인 규율 장치 안에서 권력의 눈에 노출된 채 관리되고, 권력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동”²¹⁾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나’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입원생활에서 오는 수동적 상태에 의해 무기력과 권태를 느낀다면, 의사와 간호원들은 비교적 능동적으로 보이지만, 환자를 살려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의 차이가 이 둘을 매우 다른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다. 둘 사이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권태감과 분주함이라는 상반된 양상의 기저에는 모두 삶의 유지에 필요한 반복적인 일상과 주체의 순종성이 짙게 깔려 있다. 이 권력은 일상에 밀착되어 있고 개인의 신체를 관리하고 이상적인 신체로 생산한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규율권력의 하에서 이상적인 신체를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규율권력에 의해 조성된 일상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체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그에 따라 순종적인 삶을 영위하는 주체들을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

21) 양운덕, 「미시권력들의 작용과 생명정치」, 『철학연구』 36, 2008. 175쪽.

게 한다. 물론 규율권력이 삶에 개입하는 것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 단순히 폭력이나 지배, 억압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특징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 ‘나’의 경우처럼 억압과 통제를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나’와 ‘의사와 간호원’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권력의 양면성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나’가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입원생활에 순종하는 주체라면, 의사와 간호원은 ‘의학’ 지식을 맹신하고 무조건적으로 그에 순종하는 주체들이다. 「견습환자」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나’가 입원생활 중 겪는 무기력 속의 권태와 의사와 간호원에게서 나타나는 분주함 속의 권태는 사실 일상의 반복성이라는 관점과 권력에 대한 주체의 순종이라는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두 양상 모두 일상에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규율권력에 의한 주체의 길들여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병원 생활에서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참을 수 없는 권태,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간호원과 의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돌게 할 법한 행동들, 그들의 정밀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행동들을 계속한다. 그러던 중 ‘나’는 매일 아홉시 회진 때면 과장된 호소를 했던 것을 관두기로 한다. 그러고는 퇴원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체계에 균열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획한다. 환자의 침상마다 붙어 있는 환자들의 명패를 모두 바꿔 놓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 작은 혼란을 조장하면서 병원과 의사들에게 “새로운 방황의 길”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잠이 든다. 하지만 다음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여느 때와 같은 평온함이었다. 전날 품었던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나’는 스스로 체계에 균열을 도입하려 했던 모든 행동을 그만 두기로 한다. 이 포기는 누구의 금지나 체벌, 또는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 스스로 촘촘하고 정밀한 질서의 세계에 어떤 균열도 낼 수 없음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체념은 「견습환자」의 말미까지 이어져 병원에서 퇴원해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도 일상 곳곳을 장악한 규율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느새 차는 로터리 신호등에 걸려 있었고, 이제 나는 통행금지 시간을 걱정하고, 신호등에 위반되지 않으려 걱정하고, 시민증을 꼭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새로운 소시민으로서 파스와 나이드라지드를 하루에 꼭꼭 세 번씩 복용하며,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슬퍼해야 하는 길고 긴 방황의 생활과 서서히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29쪽. 강조는 인용자)

상대적으로 넓은 바깥은 자유로운 세계일 것 같지만, 실은 병원에서의 통제와 관리를 자기 내부에서 작동하도록 은폐한 채 살아갈 뿐임을 ‘나’는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그는 병원이라는 한정적이고 특정한 공간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던 관리와 통제로부터 이제는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규율의 세계, 보이지 않는 권력 장치들의 연쇄망속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다. 인용문에 나타난 바깥세계의 금지와 의무는 병원 생활에 ‘나’가 점점 적응해 갔던 것처럼 조금씩 그의 일상의 일부로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며, 생명을 담보로 점점 그의 자발적인 순종을 신체에 각인시킬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이 조성한 일상에 완전히 순종하게 된 ‘나’는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관리할 것이다.

계속되는 ‘나’의 체념은 병원에 균열을 도입하려 했던 시도와 그 실패로 미루어 볼 때, 권력의 틀 밖은 어디에도 없다는 최인호의 비관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나’는 퇴원해서도 권력이 장려하는 대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체념과 비관적 세계 인식은 일상이 권력에 장악당한 이상 그 바깥은 없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최인호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일상의 지옥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영민한 작가였고 어떤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비관성으로 일관했던 작가였다. 이런 일상의 지옥은 「견습환자」에 바로 뒤이어 발표한 「2와 1/2」를 비롯한 최인호의 초기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2와 1/2」은 도시에 사는 이서영이라는 한 회사원의 이야기다. 그는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특근, 야근에 지쳐있으며, 어쩐지 끊임없이 밀려드는 권태감 때문에 매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다. 때문에 권태로부터 벗어나고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봐 줘쇼”하고 피했을 예방주사를 맞는 작은 일탈을 감행한다. 이서영은 그날 오후 예방주사의 약효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조기 퇴근한다. 그가 잠든 사이 여럿이 함께 사는 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집안에 함께 거주중인 사람들은 물론 이서영 역시 그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서영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서에 끌려가 반복되는 취조 도중 평소 애써 무시해 왔던 일상의 지옥과 자신의 수동적 태도에 대해 깨닫는다.

“사실 나는 오래 전부터 아주 적은 시간 이외엔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요일 오후까지, 어떤 때는 일요일까지도 나는 근무를 해야 했고, 그것은 이번 주만이 아니었다. 어제, 그제,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줄곧 부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본의

아닌 아픔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집단적인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따스한 체온을 나누려면, 그저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거나, 시민증을 꼭꼭 가지고 다니거나, 국민의 의무인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고, 군복무를 필한다는 자격 이외에도, 예방주사처럼 합리화된 독소에 몸을 떨어야 했다.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네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가령 투표를 한다는 최대의 권리 밖에서 사회는 움직여지고 있었고, 그저 나는 언제나 아픈 곳이라고는 없이 생 이빨을 빼야 하는 듯한 본의 아닌 아픔 속에서 양순하게 사육되어온 것이다.**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42쪽. 강조는 인용자)

그의 표현대로 이서영은 “스스로 걸어온 상태가 아니라, 탁한 물 밑에 가라앉은 앙금처럼 밀려온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항상 수많은 의무와 책임에 시달려야 했고 또 항상 “수 없는 착오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마음과 다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부당한 대우에 화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매일 자기 안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로 자신과 동떨어진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서영에게 가해지고 있던 의무와 책임은 “집단적인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따스한 체온을 나누려면, 그저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거나, 시민증을 꼭꼭 가지고 다니거나, 국민의 의무인 통행금지 시간을 엄수하고, 군복무를 필한다는 자격 이외에도, 예방주사처럼 합리화된 독소에 몸을 떨어야만” 하는 등의 것으로 「견습환자」에서 ‘나’가 퇴원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견습환자」의 ‘나’가 병원에서 기록된 대상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을 거부하며 권력의 체계에 균열을 도입하려 했지만 끝내 견고한 체계 앞에 스스로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지만, 「2와 1/2」의 이서영은 예방주사를 통한 작은 일탈을 감행했던 것조차 권력의 체계에 순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서영의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권력의 억압을 「견습환자」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심문도중 경찰들은 “피차 편견은 제거되어야 한다”면서 살해당한 여인의 몸에서 “임균을 검출해냈다”는 점, 그 임균이 이서영에게도 있다는 점, 이서영이 “몽유병이 있어 가끔 한 밤중에 죽은 여인의 방 앞을 서성이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의 근거들을 동원해 이서영을 잠정적 범죄자로 몰아간다. 이에 이서영은 “타의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나는 무언가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 서른의 나이에 내가 배운 바로는 저들이 놓아준 자리에 박물관에 진열된 자기처럼 앉아 있어야만 된다는 확신, 그 순종하는 희열 같은 것에 나는 이미 친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난 그냥 있을랍니다. 난 아주 재밌어요. 내일이면 또 월요일 아닙니까? 선생님.”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51쪽. 강조는 인용자)

나는 아버님 산소에 가려던 계획이 휴지조각처럼 던져진 일요일의 절정에서 **그들이 나를 부를 때까지 안전하게 앉아 있을 계획이었다**. 아침 한 끼밖에 안 먹은 배고픔과, 주사 덕분의 아픔 그리고 가슴을 저미는 듯한 고독감으로 나는 천천히 울고 있었다. 차라리 이만한 아픔이라면 아예 피병을 앓아버리는 게 낫을 성 싶다는 체념과 같이 차라리 이만한 고독과 슬픔 같은 것이라면 아예 그들에게 내가 범인이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범인이라고, 그 갈색의 계집애는 지금 우리 시대, 나이 서른 이상 먹은 자식들이라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망가뜨리고, 학대하고, 울리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홀가분하리라 생각 들었다. ...중략... **나 아닌 딴 사람이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렸노라 고백하리라 걱정했다. 그러자 나는 무척 홀가분해졌다.**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51~52쪽.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이서영이 경찰서에 혼자 남아 흐느끼면서 저질렀을지도 모를 죄의 고백을 결심하는 부분이다. 취조과정에서 동거인들 중 이서영을 포함한 3 명의 남자만 유력한 용의자로 남게 되는데, 2명의 사내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한시바삐 경찰서를 몰래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이서영은 도망가지 않은 채 경찰서에 안전히 앉아 생각한다.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고 있으며,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범인이 될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어떤 반항이나 일탈도 감행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순종하는 회열”에 길들여졌다고 생각하면서 끝내 경찰서를 떠나지도 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서영의 말과 태도는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권력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하며, 순종하는 삶에 대한 회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순종을 보이는 이서영의 태도를 통해 개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규율권력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최인호를 당대 민중문학 작가들과 구분지어 주었는데, 민중문학이 권력의 거시적 차원에 집중했던 데 반해, 최인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상에서 미시적으로 주체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규율권력의 양상을 직관하고 있었다. 이런 양상은 당대의 해석틀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현대에 와서 푸코를 비롯한 미시권력의 연구서들이 국내에 소개된 뒤에서야, 새로운 해석틀과 개념적 도구들이 소개된 뒤에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지금까지 덧씌

위진 편견과 달리 최인호는 일찍이 징후적으로나마 일상을 장악한 규율권력의 양상을 소설 속에 그려놓았고 이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통치술과 연관 지었을 때도 핑장히 타당하고 예리한 것이었다.²²⁾

지금까지 살펴 본 인물들의 비관적 세계인식과 권력에 의해 조성된 일상의 지옥은 최인호 초기 소설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최인호의 초기 소설 전반에 흐르는 반복되는 일상과 인물이 느끼는 권태 역시 규율권력이 조성한 일상의 지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때로 최인호의 인물들은 촘촘한 권력의 체계에 맞서 일탈이나 균열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벌이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좌절하거나 패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또 심리적인 갈등을 겪다가 끝내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고 만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루한 인물들이 등장해 부조리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2. 정상성과 생명권력

지금까지 살펴본 규율권력의 양상과 함께 최인호의 소설의 일상에서는 생명권력의 양상도 포착되는데, 푸코에 따르면 생명권력이란 생명관리정치라고 부를 수 있으며, “국가가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생물적 존재로 보면서 그 인간의 생물적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권력”이다.²³⁾ 이 때 생명권력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규율권력과 흡사해 보이지만, 생명권

22) 박정희 정권은 1961년 마련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1971년부터 경찰을 동원한 ‘퇴폐풍조 일제단속’ 등 대중문화를 단속하며 국민들의 일상을 장려하는 활동과 금지하는 활동으로 나누는 규율적 성격의 정책을 대량으로 공표했고 또 활용했다. 규율적 정책들을 통해 박정희 정권은 간첩을 척결하는 반공체제, 절대적 빈곤의 탈피를 위한 경제 총동원체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 백경옥, 「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대중문화통제」, 서울대 석사논문, 2012.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 2011.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 2014.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 27, 2012.

23) 생명권력 하에 놓인 국가의 통치 대상은 개인에서 인구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생명권력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이제 인구로서 “인구 전체의 증가나 감소, 건강상태, 인종적 구성” 등에 관계되는 상태로 파악된다. 이문수, 「사목권력과 생명권력: Foucault가 보는 행정권력의 기원과 현재」, 『한국행정논집』 22, 2010. 950쪽~951쪽 참고.

력 차원에서의 개인에 대한 접근은 인구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권력과 그 성격이 다르다.²⁴⁾ 생명관리 권력은 “인구로서 구성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총체에 고유한 현상들, 즉 건강, 위생, 출생률, 수명, 인종 등의 현상”들을 관리한다.²⁵⁾ 그리고 이때 인구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순환과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수준의 범주는 주체가 일반적인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포함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정상화를 추구하는 생명권력은 객관적인 사실, 생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개인을 분류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규율권력과 차이를 보인다.

최인호의 소설에 나타난 생명권력의 양상은 당시 사회적 상황들과 관련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국민의 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이며, 권력의 성격 또한 변화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생명권력의 관리 대상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족계획과 인구이동의 억제책, 농촌 귀환책 등의 직접적인 인구정책과 함께 보건소 설치, 의료보험 제도의 시행, 전염병 예방, 피임약의 보급 등 다양한 캠페인과 무의촌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의료정책을 함께 실시했다. 또 통치 대상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은 쌀 생산량을 증산시키는 정책과 쌀 가격 형성에 정부가 개입하는 미가안정화정책 등의 관리 체제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은 인구의 순환과 물적 자원의 순환을 조절에 용이하도록 국토를 재정비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지방 도시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건설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부터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도시화를 유도했는데, “도시 바깥에서 진행되는 국토개발은 곧 농촌보다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비”하는 관리 기술이었다.²⁶⁾

이런 국가의 정책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국민들의 일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이들 대부분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문제와 결부된 것들이었기에 국가의 통치 전략은 도시를 중심으로 구사되고 있었고 도시의 일상을 주로 소설화 한 최인호를 통해 미시적인 차원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권력의 양상이 포착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앞서 다루었던 「견습환자」, 「2와 1/2」와 함께

24) 규율권력이 개별적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개인을 혼욕하고 길들이는 것에 반해, 생명권력은 인구 수준에 놓인 출산율, 사망률, 질병, 정신질환 등에 개입한다. 따라서 생명권력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실은 인구의 일부분으로서의 개인인 것이다. 또 생명권력은 인구 전체의 생명을 사회보장제도와 공중보건 등을 통해 보존하고 또 증진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25) 미셸푸코, 오르트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435쪽.

26)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 2014. 53~54쪽.

중편 「미개인」에 나타난 생명권력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견습환자」의 ‘나’는 입원한 순간부터 생명권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생명을 담보로한 치료대상으로, 또 병증의 사례자로서 병원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병원으로부터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실시되는 수많은 검사들을 받게 되고 입원조치 된다. ‘나’에게 병원에서 이뤄지는 “전범(戰犯) 다루듯” 한 검사는 겁에 질릴 만큼 무섭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검사들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생명권력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생명권력은 대상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규율권력이 조성한 입원생활이 생명권력에 협조하면서 저당 잡은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의 생명이며, 이제 생명과 관계된 영역이면 어디라도 억압과 통제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입원한 다음날, 한 때의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와, 겁에 질려 있는 나를 전범(戰犯) 다루듯 사납게 벽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주사 바늘로 옆구리를 찔러 굉장한 양의 노르끼한 액체를 빼내었고, 나는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유난히 하얀 병실 벽을 마주 바라보며 그들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약간 울고 있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나치고 사라져가는 그 집행인들의 흰 가운데서 병실 벽처럼 차디찬 체온을 절감했다. 나는 이렇게 입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어느 틈엔가 아침이면 체온계를 입에 물고 사탕을 깨물세라 조심스럽게 녹이는 유아처럼 체온을 재는 모범환자가 되고 말았다.”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12쪽. 강조는 인용자)

병원에서 ‘나’에게 실시한 검사는 의학지식이 상정한 ‘표준적인 신체’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작동 기반을 마련해준다. 병원에서 작동하는 생명권력은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마치 객관적인 대상인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범주화시킨다. 이러한 대상으로 범주화된 개인은 생명의 보존과 증진만을 목표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며 관리 당하게 된다. ‘나’는 병든 신체의 소유자임이 판명된 순간 수동적인 관리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 그가 병원에 들어 온 이상 앞으로 자력에 의한 치료보다는 의사와 간호원의 처방과 치료 하에서만 늑막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든 병실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유리창 너머로 환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내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우리가 투명한 바닷물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 수많은 해초와 생물이 수런거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병실이 제각기 움

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육기 속에서 **생명을 키워가는 유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생생한 경이었다.**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16쪽. 강조는 인용자)

‘나’의 신체와 병원에는 규율권력의 양상이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제각기 다른 병으로 입원한 환자들 역시 “보육기 속의 유아”처럼 의료진에 의해 보호되고 관리당하고 있으며, 병원에서의 규율에 따르고 있다. 인용문에 나타난 병원에 입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가 바라 본 다른 환자들의 입원생활은 “생생한 경이”로 다가올 만큼 놀랍고 낯선 광경이었는데, 이를 통해 규율권력에 의해 조성된 입원생활은 익숙해지기 전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 내에서 ‘나’는 가정적인 생명 권력에 노출되어 생명을 담보로 순종하는 신체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생명권력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생명을 맡겨버린 주체들에게는 이 권력이 삶을 지탱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가정적인 의학권력의 관리 대상이 된 이상 단순한 생명체로서의 정체성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생명 보존에 맹목하고 건강한 신체의 생산을 지향하도록 조성된 병원에서의 일상은 ‘나’를 생명 유지의 절박함에 속박시킨다. 다시 말해, ‘나’는 생명을 담보로 병원에 입원한 순간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했으며 ‘나’의 능동성보다는 검사와 치료과정을 충실히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자발적인 입원은 그 스스로가 생명보존의 욕구를 가진 인간임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억압은 ‘나’의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이자 건강한 신체를 위한 절차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나’는 입원생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명유지의 필연성에 종속되어버린 한 그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며, 어느새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병원 생활에 익숙해 진다. 그는 어느새 “모범환자”가 되어 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맹신하는 의학은 인간을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삼는다.²⁷⁾ 이들이 정의하는 일정한 신체, 일정한 행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인간은 치료와 교정을 받아야 할 것들이 된다. 따라서 신체활동의 면밀한 통제가 의학에 의해 이

27) “의학은 개인의 육체와 인구, 유기체와 생물학적과정 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권력이며, 따라서 규율적이며 조절적 효과를 갖게 됐다.” 미셸푸코, 오르트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541쪽 재인용.

루어질 수 있고, 지속적인 복종을 강요받게 된다. ‘나’는 의학 권력에 의해 일련의 검사를 통해 “기록된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²⁸⁾

“굉장히 아픡니다.”

나는 믿어달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옆구리가 굉장히 아프단 말입니다. 열도 올라서 밤이면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순간 의사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텡니까?”

우두머리로 생각되는 반백의 의사가 은단을 주머니에서 꺼내 두서너 알 입에 넣고 그것을 굴리면서 거짓말 하는 절도범을 취조하는 민완형사 같은 소리를 내었다.

“어제부텡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저녁 여덟시부텡니다.”

“닥터 김.”

갑자기 그 의사는 신경질적으로 그의 물모트를 잠시 내려다보고 나서, 뒤에 선 의사들 중의 어느 누구를 불렀다.

“이틀 전의 엑스레이 검사는?”

“이상 없습니다.”

“체온은?”

“이상 없는데요.”

간호원들이 기재해 놓은 도표를 들여다보고 있던 인턴이 계산기 같은 입놀림을 했다.

“정상입니다.”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18쪽.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나’가 입원생활 중 느낀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또 웃음이 사라진 의사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려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회진시간 마다 자신의 증상을 과장해서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나’의 기대와는 달리 의사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반응이나 ‘웃음’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가 과장되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일 법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기록된 자료를 확인한 의사가 내놓은 진단은 “정상”이다. 의사들에게 ‘나’는 도표에 기록 가능한, 체온 따위의 것들이 측정 가능한 인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단지 ‘나’는 의

28) 양운덕, 앞의 논문. 176쪽.

학지식의 체계 내에 존재하는 병증의 사례, 즉 개별적 사례의 한 대상으로 병원 기록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의학지식이 상정한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에 기댄 채 대상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의학지식의 분류 기준은 건강함의 정도와 신체의 일정한 생김새 또는 규격이다. 병원에서의 이런 기록은 개별적인 사례로서 존재하는 ‘나’를 의학지식의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병의 집단적인 특성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제 ‘나’는 개별적주체이면서도 관리대상으로서의 집단, 인구의 영역 내부에 완전히 통합된 듯 보인다. “개인의 신체로부터 인구라는 집단적 신체로의 이행”이 생명권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²⁹⁾, 이는 “지식의 영역에서 개인들을 인식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

개별 사례들의 축적된 기록들은 신체를 분류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의사들은 의학 지식의 틀 안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서 실재와 확실성을 확신하고 있다.³¹⁾ 따라서 ‘나’의 검사할 수 없는 부분과 기록될 수 없는 부분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인식 불가능한 것이고, 또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 이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록 속에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나’이지, 실재하는 ‘나’가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주체의 의문이나, 불만은 생명을 보존해야하는 대업에 밀려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인구수준의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현상인 한에서만 파악되는 것이다.

「2와 1/2」에서는 이서영이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맞은 합리적 독소, “예방주사”가 등장한다. 병역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가 앞서 언급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질병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질병은 인구에 작용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여겨지게 된다.

아무래도 그 주사만큼은 맞지 않았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 봐줍쇼라고 담
배나 권하며 슬슬 우물쭈물 꿈무니 뺄 것을 무슨 큰 영웅이나 된 듯이 팔뚝을 걷어

29) 미셸푸코, 오르트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541쪽.

30) 양운덕, 앞의 논문. 176쪽.

31) “인간 정신은 자신의 산물인 수학적 정식들의 틀 안에서 스스로 실재와 확실성을 확신한다.”, “지식의 보편수학화는 감각에 주어진 것을 수학적 등식의 체계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 체계에서는 모든 실재의 관계들이 인위적 기호 사이의 논리적 관계로 환원된다.”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1996. 351쪽.

붙이고, 예방주사를 맞아버린 것은 아무래도 틀려먹은 것이었다. 그 따위 주사를 맞아야 꼭 장티푸스가 예방된다면 지금껏 난 매해 여름이면 소위 엠병에 걸려 머리털이 빠졌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여름은 유독 덥고, 어딘가 몸 한구석이 망가져버린 듯 피로하니, 그런 예방주사쯤 맞아두어 만일을 예비하자는 뚜렷한 목적의식하에 방역원 앞에 팔을 내민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2와 1/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31쪽. 강조는 인용자)

이서영은 예방주사에 대한 신뢰나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접종을 한다.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에 더욱 순종하는 방식을 취한 이서영에게 예방주사는 계속해서 “본의 아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이서영의 “그 따위 주사를 맞아야 꼭 장티푸스가 예방된다면 지금껏 난 매해 여름이면 소위 엠병에 걸려 머리털이 빠졌어야 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예방접종이 각각 개인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이서영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사실 이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몇 살에 전체 인구의 몇 명이나 장티푸스에 걸렸는지, 사망률은 얼마인지, 상해와 후유증은 있는지, 예방접종을 하는 데 감수할 위험은 없는지, 접종을 했음에도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다.³²⁾ 개인 이전에 인구 수준의 정상적인 수치나 수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네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이서영의 생각은 자신이 합리적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자신을 개인으로 다루지 않고 인구 차원에서 다루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찰서에 남아 이서영이 계속해서 “탁한 물 밑에 가라앉은 양금처럼 밀려온 상태”였다고 느끼는데, 이 점은 「견습환자」의 ‘나’가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고 기록된 대상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과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다. 이서영은 경찰서에 앉아 “또 하나의 나”를 생각한다. “밤마다 휘발유로 때를 벗기고, 브러시로 먼지를 털고, 버릇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놈에겐 철권을 휘두르는, 또 하나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수준 이하의 “또 하나의 나”는 인구 수준에서, 기록된 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교정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적인 상태의 또 하나의 나인 것이다. 이는 권력이 조성하는 일상과 사회에 순응하는 동안 놓쳐버린 자신의 또 다른 이면이자 배제되어버린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다. 최인호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와 동떨어진 인물들 중

32) 미셸 푸코, 오르트망 율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30쪽 참고.

에 이런 고유한 속성이 부각된 경우가 많다. 최인호의 초기 소설들이 생명권력에 관련된 직접적인 소재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어떤 정상적인 수준에 포함되지 못해 사회로부터 배제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를 장악한 생명권력이 지향하는 정상화 작업에 포섭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1971년에 쓰인 「미개인」은 앞선 두 소설과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면서도 생명권력이 집단에 개입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국가주도 사업에 의한 부작용의 일면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S동은 막 도시화가 진행 중인 곳이다. 개미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분교에 다니던 문동병 미감아들이 S동의 학교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소설의 주요 서사를 이루고 있다. 본고는 앞선 언급에 덧붙여 「미개인」에 나타난 S동의 주민들과 최 선생 사이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생명권력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1969년에 서울 대왕국민학교에서 내곡동 나환자촌의 미감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단체로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던 실화를 소설화 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주도의 사업이 집단의 이기주의와 만났을 때 소수의 타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가에 대한 최인호의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다. 하층민에 속하면서도 주변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문동병 미감아들이 「미개인」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인호가 이런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소설화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민중문학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판단된다.³³⁾

서울 근교 개발이 한창인 S동 주민들은 경제적 욕망에 눈이 멀어 소수의 타자들인 문동병 미감아들에게 야만성을 드러내고, 그들을 마을 외부로, 본래 살던 곳으로 쫓아내려한다. 이를 바라보는 최 선생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쪽 다리의 중요 부위를 잃고 S동에 부임한 미술 선생님인데, S동의 야만성은 그들에 동조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최 선생의 시선에 의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³⁴⁾ S동은 점점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곳이다.

33) “최인호는 1960-70년대에 형성된 새로운 시대정신에 가장 민감하고도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당시 새롭게 확산되어가던 자본주의적 인간관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유지한 작가였다. 또한 그는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관제 이데올로기와 저항적 민중운동 모두로부터 거리를 둔 작가”였다. 송은영, 「1970년대의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 최인호의 <미개인>과 <예행연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2011. 5쪽.

34) 197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면서 땅값이 치솟던 강남지역으로 추측된다. 송은영, 위의 논문, 7쪽 참고.

최 선생이 처음 도착해 바라본 S동은 개발붐으로 “불도저가 왕왕거리며 산턱을 깎아 내리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었지만, “한쪽에선 농촌 특유의 분노냄새가 풍기”는 거리로 아직 과거의 모습을 벗지는 않은 곳이다. 이 과도기적 성격의 S동은 당시 경제개발 계획으로 한편에서는 개발붐이 일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농촌의 모습이 남아 있었던 한국 사회의 알레고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당시 서울 근교는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개발 붐이 일어 구식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열을 올렸고, 또 많은 인구가 개발 중인 도시로 몰려들었고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지만 완전한 개발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면서 몰려든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하루가 멀다 하고 S동의 땅값은 치솟았으며 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욕망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다. S동은 “온 거리에 슷돌을 가는 금속성 소리가 충만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곳이며, 마을 곳곳에 출몰한다는 지능범들과 경제적 욕망으로 눈이 시뻘췌게 닳아 오른 주민들 틈에서 최 선생은 인간성의 소멸을 느낀다. 최 선생의 눈에 마을 사람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욕망에 맹목한 “앞니 빠진 유아 같은 얼빠진” 미개인으로 비쳐지고 있다. S동은 국가주도의 개발로 마을의 부가 증가되는 것에 비해 마을 사람들은 아직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부에 대한 욕망과 국가사업의 기세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만이 팽배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급속도의 경제발전이 가져온 부의 증가에 비해 우리는 정신적 빈곤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최 선생의 시선을 통해 최인호가 당시 시행됐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라는 합리적 폭력과 그에 동조하는 물질적 욕망에 눈먼 이기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무사유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 선생은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이기심과 편견으로 인해 박해 받는 미감아들을 희생양이라 생각한다. 본래 미감아들이 개미마을의 분교에서 따로 교육 받았을 때는 이런 적개심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약삭빠른 장사꾼들이 “문둥이가 가꾼 유난히 알이 굵은 채소를 사서 시내로 반입”하기 위해 개미마을에 드나들 정도로 음성나환자들을 멀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감아들은 이편으로 강 건너 온 순간부터 S동 사람들에게겐 “낮선 이방인”이었으며,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에 의한 이물질감”이 온 동리에 충만”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개미마을과 S동이 분할되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적개심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S동에 사는 아이들은 처음에 개미마을에서 온 미감아들에 대해서 들던 대로 괴물

같은지 궁금해 하면서 막연한 호기심을 보인다. 그러다 점점 미감아들을 괴롭히게 된다. 어느 날 하교길에 공동우물에서 물을 축이는 미감아들을 보고 S동의 한 소년이 “너희들이 우리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온 동네에 문둥병이 전염된다.”며 그들을 저지하려 한다. 그동안의 괴롭힘을 참아오던 미감아들 중 한 소년이 시비를 걸었던 소년을 때려눕히고는 이빨로 얼굴을 물어버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S동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 학교로 찾아와 미감아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한다. 문둥병 미감아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학부모와 최 선생간의 갈등은 미감아들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둥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음성 나환자들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번엔 다섯 명의 학부모들이 교감을 향하던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선글라스 위로 나의 모습이 조그맣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뭐라구요? 그 여인은 나를 올려다보며 높은 소프라노 음을 발했다. 음성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성 나환자가 아닙니다.** 양성 나환자들은 모두 소록도에 집단 수용하게 되어 있고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음성 나환자들은 괜찮습니다. 더구나 **그애들은 그들의 아이들일 뿐이지 그렇다고 문둥병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나환자라구요. 이보시오, 선생. 고상한 말 쓰지 마시오. 당신만큼 우리도 문화인인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환자가 아니라 문둥이요. 더럽고 축축한 문둥이 새끼요.** 그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애들은 더럽고 축축한 문둥이 애들이 아닙니다.** 이봐요, 선생. 소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이없는 듯 꺾꺾거리면서 말을 했다. 그렇다면 선생은 문둥이하고 악수도 해 보이겠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 일테면 그것이라도 할 수 있겠소? 이러지 마시오, 헛허허. 어디선가 불도저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다. 어디선가 갓 도배질한 벽 안쪽에서 서서히 썩어들어가는 강한 부패의 향기가 났다.
 (「미개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259~261쪽.)

S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나병 환자들이 격리조치 되어 왔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감아들을 비정상적인 범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미마음로 쫓아내려고 하면서 자신들과 미감아들 사이의 경계를 견고히 하려 한다. 반면에 최 선생은 음성 나환자들은 위험성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의학적 근거를 통해 S동 주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그의 태도에 S동 주민들은 도리어 더욱 야만스럽게 행동한다. 「미개인」에서 학부모들이 미감아들에게 마을사람들이 보이는 적개심은 문둥병에 대한 공포스러운 이미지와 의학적인

지식부족, 그로부터 유발된 생명에 대한 지나친 보호본능이라고 판단된다.

나병은 소위 문둥병이라 불리는 질병으로 치료가 어려운 데다가 전염성까지 있어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형(天刑)’이라 여겨질 정도로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병이었다.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알려지기 전에는 어린 아이를 잡아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을 근거로 나환자들이 어린 아이를 살해한 일도 적지 않았다.³⁵⁾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나환자는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면서 또 위협의 대상이었고 자연스레 비정상인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나환자들은 1910년부터 정상인들로부터 격리조치 당했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거나 집단적으로 학살당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³⁶⁾ 1910년에서 53년이 지난 1963년에 나환자 격리정책이 폐지되었지만, 한번 생긴 공포심과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비정상적인 존재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개인」에서 형상화 된 인물들은 나환자가 아니라 음성 나환자의 자녀, 즉 미감아들임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적용된다. 이는 소설이 쓰인 1971년까지도 나환자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없는 미감아들에게까지 비정상인이라는 굴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처음 국가에서 나환자들을 격리조치 했을 때는 금지와 배제의 성격을 띤 사법적 권력과 사회에서 개인이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하는 규율적 권력에 의한 것이었다. 1963년 나환자 격리정책이 폐지되면서부터 나환자들에게 부과된 배제의 법적인 근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어 온 사람들에게 이 두 권력이 조성해 놓은 나환자에 대한 이미지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감아 12명을 정상인들의 마을에서 함께 수학하도록 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예견된 것이었다.

미감아들을 S동 아이들과 함께 수학하게 한 것은 국가의 생명관리 권력이다.³⁷⁾ 이 권력은 미감아들을 인구로서 정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관리하려 한다. 이런 조치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데, 사실 의학적으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다.

35) “일제시대를 거쳐 1950년대까지 신문 기사에는 한센인들이 어린 아이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다는 기사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김학균,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한센병의 은유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410쪽.

36) “일제시대 총독부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소록도의 시설을 증축하고, 한센인들을 이 섬에서 거주하도록 했다. 한센인들은 일제시대부터 일반인들과 격리 수용되어 일반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김학균, 위의 논문, 421~422쪽 참고.

37) 실제로 당시 대왕국민학교에서 있었던 미감아 사건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에는 “일반 학부모들의 끈질긴 분리교육주장으로 설득 강연마저 실패한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거의 설득을 포기, 잠정적인 분리수업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보건사회부는 미감아는 나환자가 아니라는 의학적 이유를 내세우면서 분리교육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강경히 맞서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부처간 이견…혼선만」, 『경향신문』, 1969년 5월 12일.

나균은 독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에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오랜 기간 나균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또 나병은 유전이 되지 않으며 음성 나환자의 아이들에게서는 나균이 검출되지 않는다. 미감아들은 부모가 음성 나환자일 뿐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아이들인 것이다. 생명관리 권력의 조치는 관념화된 이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S동의 마을 주민들은 미감아들을 비정상인으로 보고 있고 최 선생은 정상으로 보고 있다. 「미개인」의 갈등은 미감아들을 바라보는 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양측 모두가 정상성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성과 생명관리 권력의 조치를 수용한 최 선생이 생각하는 정상성의 범주가 다른데서 오는 갈등인 것이다. 한편에서 미감아들을 보통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하고 또 그 아이들의 자립을 도우려 했던 생명권력은 생물학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미감아들을 정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려 했고, 또 이런 양상은 최인호가 권력을 단순히 폭력으로만 파악하지 않았기에 포착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Ⅲ. 공공 영역과 통치성

1. 언론의 유희성과 통치성의 변화

1970년대 미시적 권력의 양상들과 더불어 최인호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권력이 사적 담론을 통치의 대상으로서 장악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다. 최인호의 중편 「가면무도회」에는 언론이라는 공공 영역이 사생활을 다룬 기사들에 의해 장악당하면서 기자인 화자가 겪는 심리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아렌트의 논의에 따르면, 본래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은 경계가 명확했고 또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대 서구에는 폴리스에서 비오스(bíos)적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창조적인 행위’와 오이코스에서 조에(zōê)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노동’간에 엄격한 구분이 존재했다고 한다.³⁸⁾ 폴리스에서의 ‘창조적 행위’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욕구의 문제와 가정 경제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은 이들의 것이었다.³⁹⁾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근대화의 물결이 삶 곳곳을 장악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이 전면에 부각되고, 정치적인 영역은 먹고사는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즉 경제와 정치의 구분이 모호해졌고 “언제나 훌륭한 통치는 경제적 통치”가 되었다.⁴⁰⁾ 노동의 영역에 속했던 단순한 생명인 조에가 공적 담론의 영역이었던 정치적인 생명인 비오스를 압도하는 것은 다른 시대와 근대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사적 담론은 이제 공적 담론 영역을 장악하고 정치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권력은 이제 사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삼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규율권력과 생명관리 권력이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를 길

38)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정치를 비교하면서, 가정의 영역에서만 생명과 생존에 대한 염려에 몰두 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나 자기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자유로운 정치 영역과 대비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을 가정의 영역에서는 누릴 수 없고 생명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노예성의 확실한 표시가 된다. 또 이런 가정의 영역에는 불평등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88쪽.

39)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푸코, 아감벤,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와 비교하며 그 연원을 분석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존재했었다. 가정의 영역인 오이코스(oikos)와 공적인 영역인 폴리스(police)의 영역에서의 관심사는 상반된 것이었다. 생존의 문제나 경영과 관련된 것들이 가정의 소관이었으며 필연적인 존재 조건이었던 데 반해 공적인 영역은 정치적 행위의 장이자 앞서 언급한 가정의 영역의 필연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본래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의 문제는 가정의 영역에서만 다뤄질 수 있었으며, 노예나 여자들의 소관에 있는 문제였다. 이런 영역의 분할과 함께 각각의 영역에서의 인간의 삶 또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즉 사적인 영역에서는 종으로서의 인간의 삶이 있었으며,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치적인 인간의 삶이 있었다.

40)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 2014. 45쪽.

들이는 것보다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가면무도회」는 사회부 기자인 이문후와 베테랑 기자인 부장 사이에서, 한 남자의 첫사랑을 찾는 기사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 갈등을 요약하자면, 사생활과 특종 사이에서 무릇 기자란 어떤 것을 추구해야 온당한가하는 문제를 두고 이문후는 사생활은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입장, 부장은 대중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두사람의 갈등을 통해 최인호가 현대판 폴리스의 구실을 해야 할 언론이 사적 담론에 의해 잠식당하고 유희거리만을 다루는 것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두 사람의 대립과정에서 부장이 내세우는 논리중 하나는 대중이 언론에 요구하는 기사의 취향이 확연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소설 속에 그려진 대중들은 정치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엄중히 말해서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 카메라를 들이댈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저녁 뉴스에 상세히 보도해주어야 할 것이지, 사람이 죽는 현장을 몇 시간씩 중계하듯 보여준다는 것은 대중의 맹목적인 사디즘, 가학 취미에 매스컴이 단순히 놀이난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사형장을 중계한 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략... 다음날 조간신문에는 클로즈업된 여인의 나신이 사회면을 장식했다.

(「가면무도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174~175쪽.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이문후가 몇 년 전 심야에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을 다룬 기사를 회고하는 대목이다. 이 회고를 통해 부장과 이문후 사이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부장에게 상정된 독자는 현장감 있고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하는 대중이다. 즉 부장에게 독자들은 매스컴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즐기는 “사드적 주체”들이며 부장은 독자들의 기사 취향이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는 기사”나 “스포츠와 일반 레저 기사”쪽으로 변화했고 신문사는 이에 부응해야 함을 주장한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일지라도 대중이 원한다면 신문 기사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문후에게 그런 독자의 범주 자체가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유발하고 작업을 권태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문후는 대중이 기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기자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에 유독 많은 불만이 있으면서도 신문사를 관두지 못한다는 점은 그를 더 괴롭게 한다. 이문후는 치안, 경찰, 재판, 시정 등을 다루어야 할 ‘사회부’기자

다운 진정성을 저버리고 자극적인 유희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가책을 느낀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인호의 인물들은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거나 순응하는 자신에의 모습을 기만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기사에 여인의 나신이 공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화재가 난 장소가 퇴폐적이라는 데 있다. “고고 클럽이 퇴폐의 온상이라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대상임을 강조”함으로써 기사는 여인의 나신을 내보내는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고 클럽이나 여관을 퇴폐적인 장소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당시 권력이 조성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관계가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박정희의 통치체제는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듯 국민들의 일상에 사소한 것까지 개입을 일삼고 있었는데, “국민 전체를 같은 시간에 깨우고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잠들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러야 할 노래와 입어야 할 치마의 높이, 그리고 길러야 할 머리카락의 길이까지 강제”할 정도였다.⁴¹⁾ 이런 간섭은 근면한 노동자를 모범적인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 근면성실과 근검절약을 국민들에게 강조하려 했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근면한 노동자라는 범주로 국민들을 분류하고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때문에 일하지 않고 고고 클럽에 나가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국민, 여관을 드나들며 근면한 노동자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집단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문후를 찾아온다. 그는 반공포로였다가 브라질로 망명을 떠났었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대사관에서 얻은 팸플릿 속에서 자신의 옛 연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를 찾으러 왔으니 도와 줄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문후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왔는지 모르는 그 여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얼굴과 사생활을 기사에 공개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 고민한다. 이문후가 이 일을 맡아야 할지 고심하는 것을 알게 된 부장은 이 이야기가 엄청난 기사거리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적극적으로 맡으려 든다. 부장은 반공포로였던 사내(황철진)를 만나 본격적으로 기사를 쓸 것을 이문후에게 제안하고, 전쟁 중 헤어진 그의 약혼녀(정수경)의 사진을 기사와 함께 보도할 것을 제안한다. 사진을 기사에 내보내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두 사람은 다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다.

41) 김형중, 「1960~70년대의 한국과 생명정치」, 『인문학연구』 47, 2012. 77쪽.

“무턱대고 아침에 이 여인의 사진이 나간다면, 만약 그 여인이 살아 있다면, 자칫 하면 지금 그 여인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면서 이 여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침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납니까? 혹시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략... “**목적**을 위해서는 빈자리에 조작된 꽃이라도 우린 꽂아두어야만 해. 우리의 기사 목적은 그 꽃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린 운전의 무질서와 뺑소니 차량에 대한 경고, 건널목에 대한 행정 당국의 배려를 촉구했을 뿐이야. 이형은 단지 그 목적은 보지 못하고 그 꽃 한 송이의 조작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야. 독자들은 신문을 믿으려 들지도 않고 신문기사에 무디어져 있어.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텅 빈 자리에 꽃을 임시로라도 조작해두어야 하는 거야.” (『가면무도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198~200쪽. 강조는 인용자)

위 대화를 통해 둘의 입장 차이는 더욱 분명해 진다. 이문후는 독자들에게 기사가 흥미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기사의 주인공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사생활과 기사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장은 기사의 흥미나 기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쯤은 희생될 수도 있으며, 기사의 극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 약간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장의 생각은 신문의 판매 부수가 신문사의 존폐 여부와 결부되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신문을 사 읽고 “신문값 삼십 원어치만큼”의 기사를 원한다. 공적 영역을 다루는 언론사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좌우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부장의 주장은 신문사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사적 담론의 영역으로 독자의 관심이 이동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권력의 규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소설이 쓰인 1970년대는 대중적 파급력이 큰 언론이 검열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⁴²⁾, 사실 진지한 정치적인 담론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유신체제 하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던 정치적 발언을 상대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되어버린 언론이 눈을 돌린 것은 일반인들의 사건, 사고였다. 다수의 선호라는 명분하에 정치적이고 공적인 담론을 다루어야 할 언론이 소수 개인의 사생활을 기사거리로 삼게 됐다.

42) 언론인들은 1971년 5월 15일 ‘언론자유수호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책임성 있는 취재·보도 2. 관계기관의 불법 부당한 연행의 일체 거부 3. 기사삭제에 대한 타당성 확인 4. 정보기관의 언론기관 상주·출입의 배제 등이다. 뒤이어 1973년에는 ‘언론자유 수호결의’ 1974년에는 ‘자유언론 실천선언’등이 이어졌다. 언론인들의 정권에 대항하는 선언들은 당시 언론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탄압받아 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검열뿐만 아니라 당시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곳곳에 확산돼 가고 있던 자본주의 생활양식과 국가주도의 “경제제일주의는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대중의 욕망을 근대화로의 방향으로 정향시키기 위한 담론이자, 근대화를 수행할 주체창출의 규율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⁴³⁾ 언론이 사적 영역으로 고개를 돌린 것과 함께 국가권력도 사적 영역에 개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빈곤의 퇴출이라는 목적을 내세운 경제제일주의부터가 정치적인 차원에 놓여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경영의 차원, 즉 오이코스(Oikos)의 영역을 내세웠던 것이다. 당시 국가 통치의 최고 권위자 자리에 있었던 박정희가 자신을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에 빗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기사를 내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장과 이문후는 한 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연락을 취한 사람은 그들이 찾던 사진 속 정수경이었다. 여인은 황철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기에 용기 내어 연락을 취했으나 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부장은 정수경에게 연락이 온 순간부터 텔레비전 보도국과 연락을 취하면서 새로운 연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부장은 여인에게 황철진의 연락처를 모른다며 텔레비전 보도국에서 있을 그와의 특별 좌담에 참석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정수경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아주 먼 시가 쪽에서 한꺼번에 얽혀 뭉뚱그려진 도시의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한때는 폐허였던 도시 위, 숲속 산에서 바라보면 저 도시 속에서 벌어지는 광기와 분노, 건설과 파괴, 욕망과 공허, 그런 도시적인 음험한 음모들이 아주 무관하게 펼쳐져 보였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였다. ...중략... 산 위에서 바라보면 먹고 살기 위한 직업과 연결된 분주한 땀박질, 전화벨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죽을 것은 죽고 유별나게 살아야 할 소리만 살아서 이리저리 혼합되어 들려오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깊이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음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도시는 한꺼번에 앓고 있었다. 신음 소리를 내면서. 한때엔 폐허였던 도시가 바람도 없는데 펄럭이며 날리는 깃발처럼.

(「가면무도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223쪽.)

정수경과의 만남 뒤 북악산을 내려오면서 문후는 도시가 “광기와 분노, 건설과 파괴,

43)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 2011. 117쪽.

욕망과 공허”로 앓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의 중심에 “먹고 살기 위한 직업과 연결된 분주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생각과 함께 기자로서의 모습보다는 영화감독과도 같은 연출력을 선보이는 부장의 일관된 태도 역시 신문의 판매부수와 신문사의 입지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도시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신음하게 된 것은 박정희 체제 하의 산업화와 도시화와 관계가 깊다. 한국사회에서 박정희는 4.19를 계기로 움트기 시작했던 맹목적인 서구적 자유에의 선망과 민주화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 경제적 빈곤의 타계에의 열망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보기 드문 통치자 중 한 사람이다.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가 내세운 국가이성은 주지하다시피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난을 해소시킨다는 것이었다. 집권 초기 그는 “통치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봉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⁴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기에 정권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경제 문제의 본격적인 대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통치 대상이 사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통치 의미를 “경제적 통치”로 전유했다. 최인호가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은 그의 소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⁴⁵⁾ 이제 한국 사회의 최대의 고민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고 그런 문제에 시달리는 대중에게 남은 것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향해 피부어지는 증오”였고 그것은 “그들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동물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한편 이문후는 대중의 집단적인 가학성에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자로서의 신념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심한 위통을 앓는다. 정수경과의 만남에서도 부장이 일부러 황철진의 소재를 숨긴다는 것을 알고 묵인하는 자신의 모습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위통에 시달린다. 이 위통은 그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문후는 아까부터 쓰러오는 위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먹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후는 회사 앞에 차를 세우고는 짹짹한 입맛으로 우동을 한 그릇 삼켰다. 무엇이든 위 속에 집어넣으면 거짓말처럼 위장이 편안해진다. 문후는 자신의 위가

44) 송은영, 앞의 논문, 52쪽.

45)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정치는 일종의 가부장제도의 가장과도 같은 존재이다. 사회는 엄밀히 말해서 커다란 가정과 같은 것이다. 국민들은 이사회라는 가정의 아이들 같은 존재인 것이다.” 최인호, 「가부장적 정치론」, 『철학과 현실』 8, 1991. 113쪽.

자신의 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뻘뻘 해로운 줄 알면서 그날 저녁 퇴근 후에 문후는 무지무지하게 술을 마셨다. 마치 자신의 위를 학대라도 하려는 듯.
 (『가면무도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227쪽.)

부장의 거짓말을 보고만 있었다는 죄책감과 모멸감 때문에 이문후는 자신의 위를 학대한다.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도 무엇이든 먹을 것만 넣어주면 금세 말짱해지는 위는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문후의 심리적인 괴로움과 불만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고 할 때면 소리 없이 위통이 찾아와 행동을 저지한다. 마치 위통은 이문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때가 되면 상기시켜 주고 그 스스로가 배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그를 더욱 괴롭게 한다. 이 괴로움은 부장의 의도대로 정수경과 아들, 황철진이 티브이 쇼에 출현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데서 더욱 심해진다.

마치 영화 끝 무렵에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어 엔딩 마크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몸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문후는 일어서서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눈가에 맺힌 눈물에 분노를 느꼈다.

이 미친 녀석아. 너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엇이 네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면서 찢찢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문후는 공개홀을 나왔다. 그의 등뒤에서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후는 애써 눈가의 눈물을 지워버렸다.

(『가면무도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259쪽.)

“강한 조명으로 마치 수술대처럼 밝은” 녹화장에서 극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 부장이 구성해 놓은 조명과 음악, 분위기에 이문후 자신도 눈물을 흘리는 어쩔 수 없는 한낱 인간임을 느낀다. 조정실의 “죽은 인형의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끈을 조종하는 것 같은 뻘뻘스런 무관함”으로부터 그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또 그가 그렇게도 비난했던 대중의 소수를 향한 맹목적인 공격성,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흠련이 터지기를, KO되기를, 벌거벗기를, 얻어맞기를, 물바가지 뒤집어쓰기를 바

라는 집단화된 못된 사디즘”에 그 역시 가담하고 있음에 몹시 괴로워 한다.

이렇듯 소설이 후반부를 향해 갈수록 어쩔 수 없는 이문후의 처지와 심리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최대의 고민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의 소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전 세대의 중요 가치 중 하나였던 진정성이나, 양심, 동정심 역시 함께 소멸해 버렸음이 드러난다. 이문후는 결국 부장의 의도대로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를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빠져 나온다.

문후는 유리창 밖의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왔다. 그는 긴 복도를 걸었다.

그가 지날 때마다 방문에 붙은 팻말들이 눈을 때렸다.

‘조용히, 녹음중’ ‘조용히, 녹음중’ ‘조용히, 방송중’ ‘조용히, 방송중’ ‘조용히, 연습중’ ‘조용히, 연습중’ ‘들어오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문후는 몇 개의 계단을 걸어내려서 방송국을 나왔다.

신문사로 들어가려다 그는 가까운 음식점에 들어가 밥을 시켰다.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고 문후는 생각했다. 이 공복의 지독한 위통을 달래기 위해서는 딱치는 대로 무엇이든 입에 퍼넣어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가면무도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260쪽.)

공적담론이 사적담론에 의해 잠식당하면서, 이문후는 자신 역시 권력이 개입하고 조성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어 권력이 이끄는 대로 일상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혼자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것이 부질없음을 새삼 깨닫는다. 먹고 사는 것이 공적인 영역을 장악해버린 한국사회에서 통치대상은 사적영역이 되었고 그렇기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는 사적 자유는 이제 훼손당하고 별거벗겨진 채 공공의 영역으로 끌려가게 됐다. 최인호는 이문후를 통해 언론이 사적영역을 다루고, 그것을 유희화 시켜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를 드러내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일상의 지옥을 실감하게 되는 이문후의 모습을 통해 권력의 바깥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그의 채 등단작인 「견습환자」에서부터 「타인의 방」과 같은 작품 등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비판적 세계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인호의 초기 소설들에서는 세상을 바꾸거나 뒤집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거의 없으며, 이런 점 때문에 그의 비판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가 비판을 받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는 차라리

어떤 점에서는 기만적인 전망을 내세우지 않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태도였다고 판단된다.

2. 학생운동의 허위성과 통치성의 변화

검열에 의해 정치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던 언론과 달리 당시 정치적 발언을 앞세운 학생운동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했었다. 대학가는 최루탄과 학생들의 선전 구호로 조용할 날이 없었고 또 정상적인 교과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의 데모 참여도 또한 높았다. 최인호의 중편 「무서운 복수(複數)」는 1970년대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학생운동을 둘러싼 이야기다. 이 소설이 쓰인 시기가 1972년인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1971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교련반대시위를 떠오르게 한다. 대학 간 연계 운동으로까지 번져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5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자, 박정희 정권은 10월 15일, 서울 전역에 위수령⁴⁶⁾을 발동한다. 그리고 서울 시내의 8개 대학에 위수군인이 배치하여 1889명의 학생들이 연행됐고, 이 중 119명은 구속되었다. 게다가 시위주동 학생들 117명은 입영 조치되었다. 위수령이라는 주권자의 초법적 권한 앞에서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은 말 그대로 ‘호모사케르’였다.⁴⁷⁾ 벌거벗은 생명은 신성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희생재물로는 봉헌될 수 없는 면책살해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벌거벗은 생명을 의미하는 아감벤의 “호모사케르”라는 용어는 어떤 정치공동체 안에 기입되고 그 안에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 권한을 주권 권력에 위탁한 존재들을 의미한다.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은 시민으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사회의 부정에 맞서는 권리를 누렸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박탈당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초법적 주권 권력에 의해 처분 당했다.

46)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김형중, 「1960~70년대의 한국과 생명정치」, 『인문학연구』 47, 2012. 71쪽.

47) 생명정치의 차원에서 1960~70년대를 재조명한 김형중은 주권자(박정희)에 의해 창출된 ‘위수령’, ‘긴급조치’ 등의 예외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법집행의 효력 정지를 가져옴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초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형중, 위의 논문. 71쪽.

당시 학생운동의 구호는 대부분이 독재정권의 탄압과 폭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었으므로 충분히 당대의 공적인 담론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가 감지하고 있었던 사적 영역의 압도가 「무서운 복수(復數)」의 소재인 대학운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70년대 통치성의 변화를 포착해 공공영역의 성격이 변화해 감을 보여줄 것이고 또 그의 비판적인 세계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최인호의 「무서운 복수(復數)」는 어수선했던 대학가 분위기를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학교를 9년째 다니는 복학생 화자의 이름은 최준호이며, 서울의 한 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이고 잡지에 글을 쓰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인호 자신이 화자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어느 날 병정놀이 같았던 교련수업을 현역 군인 교관들이 맡게 되면서 진짜 군인 다루듯 하는 수업 방식에 학생들은 불만과 반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교련수업은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데모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교련수업 반대 데모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는 겉보기에는 자신들을 장악하려는 권력에 대항해 자못 반항적이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꽤기가 넘쳐 보인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최준호는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학생운동을 앞장서서 이끄는 오만준과 김오준으로부터 성명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 쓰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한 글자도 적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불이익을 생각하며 학생운동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한다.

이런 최준호와 비교했을 때 데모를 주도하는 오만준과 김오준은 적극적인 행동파인 것으로 보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신념에 가득 찬 듯 보인다. 최준호는 성명서 부탁 건으로 이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잡지에 실린 자신이 쓴 소설이 적극적으로 사회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뒤이어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비판은 당시 최인호의 소설들에게 가해졌던 따가운 시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작가 스스로가 글쓰기에 대해 어떤 고민을 품고 있었는지 짐작케 한다.

“당신네 글 쓰는 친구들은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난 정말 그것을 꼭 최형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당신네 붓들은 모두 사적인 얘기에 치우치고 있어요.** 나이 먹은 축들은 옛날 대동강에 뱃놀이 할 때가 좋았다고 쌍팔년도식 회고담이나 주절대거든요. 글은 모름지기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국민을 옳은 길로 각성 내지

는 계몽을 시켜야 된다 말씀이야. ...중략... 최형 작품 읽어봤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아내가 바람 좀 피웠고, 스폰이 허공을 좀 날기로서니 그게 뭐 어쨌다는 말씀이야. 그런 것은 불란서 자식들이 다 써먹었어. 최형, 여기가 뭐 불란서인 줄 아시오? 여긴 한국이요, 한국.”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09쪽. 강조는 인용자)

김오진은 최준호의 소설에 대해 사적인 것에 치중한 글을 쓰느라 사회의 부정부패를 글 속에 담아내지 않았음이 글 쓰는 이의 사명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판한다. 최준호의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내가 바람 좀 피웠고, 스폰이 허공을 좀 날기로서니”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당시 김현에 의해 호평을 받았던 최인호의 단편 「타인의 방」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김오준의 언급처럼 정치적인 차원에서 사회에 참여해야 할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언론의 경우에서 보였던 변화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장 내에서도 공적 영역에 대한 사적 영역의 압도 양상이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품은 소설을 논의 대상으로 삼던 문학장에 최인호처럼 개인의 세세한 일상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작은 사건들과 인물의 심리에 집중하는 소설들이 소개되며 또 신문에 연재되면서 호응을 얻었다는 점은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일부의 취향도 사적영역을 다루는 소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무서운 복수(複數)」에서 직접 언급되는 김지하의 「오적」과 같은 풍자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작품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에서 최소한 대중들의 소설에 대한 관심이 사적 영역을 소재로 한 것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음도 자명해 보인다.⁴⁸⁾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박정희 체제가 내세운 ‘경제제일주의’는 사회의 최고 관심사였고 산업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을 독자들이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민중소설 못지않은 공감대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다.

48) 최인호, 조해일, 한수산, 박범신 등의 민중문학에 비해 상업성과 통속성이 짙은 확보한 작품들이 1970년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당시에는 본격소설과 대중소설을 나누는 이분법적 편견에 의해 연구되지 않거나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중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 상업적 이득을 보려했던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대중의 감수성과 위 작가들의 소설이 부합될 수 있는 요소를 지녔다는 점은 당시 시대현실과 그 사회의 계급구조와 권력구조의 반영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지배적이었던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길항작용도 심도 있게 드러내고 있음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81~205쪽 참고.

주지하다시피 당시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옴아매는 명분은 ‘대중의 빈곤의 구제’라는 경제의 문제였으며, 사회를 지배하던 권력은 대중을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죽게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배제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했음이 「무서운 복수(複數)」를 통해 나타난다.

이미 그렇게 사진 찍힌 친구는 신세 조진다는 소문이었다.

국가기업체에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취직될 수 없고 군대에 가도 전방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런 말도 떠돌고 있었다. 심심풀이로 데모를 해도 앞장을 서지 말라는 얘기였다. 즉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제삼의 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급 카메라로 우리들을 찍어내리는 사진사는 될 수 있는 한 피하라는 얘기였다.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32쪽.)

대학가에서 데모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학생들 사이에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스냅 사진을 정부에서 찍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떠돈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사진에 얼굴이 찍히는 순간 닥칠지 모를 불이익은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의 영위를 불가능 할 것이었다. 독재정권은 체제에 반항하면 합법적인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들을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방치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즉 생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끔 죽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개인들을 장악하고 통치했다. 이런 소문은 학생들에게 “심심풀이로 데모를 해도 앞장을 서지 말라”고 이해되었고, 때문에 오만준과 김오진과 같은 특정 인물들에게 정치적 행위와 발언이 일임되어 있는 듯해 보인다.

「무서운 복수(複數)」에 나타난 어수선한 대학가 분위기 못지않게 화자인 최준호가 데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군대에서 상관의 일을 도와주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위문품 절도범이 된 적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밝혀라”라고 큰 소리 치지 못한 채 억울한 처분을 감수했었다. 때문에 괜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데모에 가담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기모멸감과 비애감을 느끼기도 하는 인물이다. 항상 앞장서지 못한 채 남들의 목소리에 이끌려 다녔던,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부당한 대우를 꼭 참은 채 자신의 죄 없음을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았던, 그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꾸벅이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자기 모멸감은 생의 필요성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비굴하게나마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몸을 사리게 만들고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감수하게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면무도회」의 이문후가 위통을 앓는 것과 비슷한 처지에서 생겨나는 태도로 보인다.

이런 최준호와 오만준 그리고 김오진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만준과 김오진이 생의 필요에 종속되지 않은 것처럼 데모에 앞장서는 인물들이라면 최준호는 생의 필요에 종속되어 폭력과 부당한 처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최인호의 생각은 학생운동을 바라볼 때조차 지배에 대한 저항과 전복 쪽으로 이어지지 않고 좀 더 비판적인 쪽으로 흘러간다. 이는 그가 권력을 민중문학의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매년 봄이면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데모판을 “연중행사”라고 묘사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데모의 관성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새로 경질된 학생회장단은 으레 우리는 청렴결백한 여러분의 종입니다, 주인은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러분의 종일뿐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의 데모를 해야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데모를 하지 않으면 온몸이 쭈시는 버릇이 들었던 것이다.**

새봄에는 새로 들어온 교양학부 학생들이 참 용감하기 짝이 없어서 그들은 말만 들어온 데모를 실습하려고 잔뜩 베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교양학부 학생들이 건재하는 한 데모 전선엔 이상이 없는 것이었다.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04쪽. 강조는 인용자)

최준호의 눈에 대학가의 데모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홍보용이거나 젊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울분과 폭력성을 표출하는 활동쯤으로 보인다. 또 이 행동은 습관화 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새로 선거에 출마한 학생회장단들은 서로 좀 더 진보적이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학생운동에 앞장서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회장단이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다. 이런 이해타산적인 생각은 표를 얻기 위해 짜장면을 사주거나 스테이크를 사주는 학생회장단의 선거 운동에서도 나타나며 학생들의 표는 정치적 차원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개인적 이득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장단이

선거운동을 위해 데모를 활용하는 것이나, 학생들이 울분과 폭력성을 학생운동을 통해 표출하는 것은 모두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와 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무서운 복수(復數)」를 통해 최인호는 대학가의 복잡한 상황과 함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최준호라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학생운동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최준호가 바라보는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드러날수록 학생운동의 허위성이 점차 드러난다. 최준호가 느끼는 부채감과 자기모멸의 감정은 세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⁴⁹⁾ 자신이 군대에서 겪은 억울한 처분의 기억과 두려움, 어릴 적의 기억과 데모에 참여했을 때 현실적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도 이유지만, 학생운동 자체가 “데모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약과도 같은 습관”으로 보인다는 것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생각 깊숙한 곳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자기가 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함께 데모의 형식성과 허위성에 대한 직관이 자리하고 있다. 형식적인 데모는 이제 진정한 세계의 불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단지 학생회장단의 이해관계로 얼룩져 있으며 자동화된 방식으로 일정 기간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불안과 울분 그리고 잠재된 폭력성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역할만을 맡을 뿐이다.⁵⁰⁾

대체로 우리들은 모두 교환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슬쩍 지나치기만 해도 저 곁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부정, 간통과 방화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었다. ...중략... 우리는 잘 보이면서도, 눈이 현미경처럼 좋아 박테리아균이 번식하는 것까지 보이면서도 우리는 안 보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무서운 복수(復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30~231쪽.)

말하자면 우리는 육종(肉腫)이다. 잔인하고, 질 나쁜, 그러나 비굴하고 밤에만 크는 육종이다.

그들의 가슴속에 어느 틈엔가 뿌리를 내리는 잡초처럼, 그리하여 그들의 양분을 빨아 크는 기생목처럼 우리는 크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라, 우리는 스스로 세포분

49) “개별 주체가 세계의 허위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략... 현실 논리에 대해 부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반성(Reflexion)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소영현, 「'스스로 희생자 되기' 혹은 견딤의 서사-최인호론」,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454쪽.

50) “정치는 이제 경제의 부속물, 생산과 제작의 부속물, 즉 ‘사적인 개인과 집단들의 이해와 욕구에 기반한 쟁론’들의 효과적인 중재(실은 억압) 이외의 다른 말이 아니게 된다.” 김형중, 「1960~70년대 한국과 생명정치」, 『인문학연구』 제27호, 2012. 69쪽.

열까지 할 수 있다. 좀 어둡게만 해다오. 배양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부수
 어 던져 또하나의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31쪽.)

형식적인 데모와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비판의식도 없고 관성만
 을 동력으로 삼으며 이것은 맹목적인 폭력성의 표출일 뿐이라는 점은 소설의 중반부
 교수와 최준호의 대화를 통해서, 후반부 최준호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강
 조된다.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젊은 청년들은 적이 누군지도 모른 채 항상 위기상황에
 내몰려야 했고, 그럼에도 자유롭게 반항하고 싸우기 보다는 철저한 “페어플레이” 정신
 으로 무장한 채 정해진 공간과 시간 외에는 절대로 투지를 불태우지 않는다. 학생들이
 데모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군경들도 군 상부의 데모를 막아야만 한다는 맹목적 지
 시를 받은 수동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일 뿐이다. 이들은 양측 모두 정치적으
 로 무사유한 주체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허위성은 더욱 부각된다.

게다가 학생운동을 주도해 오던 오만준 역시 이런 수동성과 맹목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구체화 되는데, 이를 계기로 최준호와 오만준은 가까워지게
 된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 오만준 김오진류의 사람들 역시, 실은 최준호
 와 별반 차이가 없었음이 “그들이 내게 술래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게 데
 모를 하라고 철새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릴 때의 그 놀이처럼 놀이에 불과하
 지는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싸움이에요. 난 술래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은 나의 비열한 용기예요.” 라는 직접적인 오만준의 발언을 통해 확실해 진다.

데모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합창이었다. 데모를 하려고 서로의 굳은 어깨에
 어깨를 대면 상대편의 핏속으로 튀어들어와 수혈(輸血)이 되고 평소에는 퇴색되어
 그 빛을 찾을 수 없던 젊음이 새삼스레 번쩍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가슴속에는 평소 때의 분노 이를테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
 가, 사회적인 관심거리, 버스값, 군대라는 관문, 부모의 지나친 기대 ...중략... 우리
 는 월남의 중립문제니 새로 생긴다는 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아아 비겁한 민
 주주의여 안심하라.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71쪽.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오만준과의 대화 끝에 최준호가 학생운동의 본질과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절이다. 사실 오만준은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마음을 계속

해서 느끼고 있었으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비열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 데모에 앞장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 오던 오만준 역시 지금까지 그가 살아 온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데모의 관성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최인호가 보기에 몇몇의 술래를 앞세운 이 관성적인 데모의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정치적인 차원의 온갖 잡다한 억압으로부터 쌓인 폭력성의 표출이었다.⁵¹⁾ 사적인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채 각자의 마음속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울분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오만준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술래가 되어야만 한다는 억압과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컸을 것이며, 그를 데모의 가장 선두에 서게끔, 앞장서서 그 안에 쌓인 폭력성을 표출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가슴은 아무리 비싼 등 록금을 내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는 현실적인 슬픔으로 이미 멍들고 있었다.** 신문마다 기업체는 불경기로 올해는 예년의 절반밖에 사원을 뽑을 수 없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었으며 그 말은 정말 실현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쓸데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냉대를 받았다. 그런데도 거리는 흥청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69쪽. 강조는 인용자)

데모는 도시의 성장에 반비례하여 더욱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가는 학생들의 막연한 불안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도시로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또 치솟는 물가와 집값에 날이 갈수록 도시에서의 생활은 궁핍해져만 가고 있었다. 삶의 목적이 생의 유지가 되어버린 이상 궁핍한 생활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그 결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학생들의 연대가 4·19때와는 다른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앞선 세대의 학생운동이 가시적인 적을 향해 집단적 형태의 우리를 형성해 불만과 정치적 권리의 요구를 분출했던 것이라면, 1970년대의 학생운동은 개인화와 함께 집단의 연대라는 상태가 동시에 있었고 이중의 정체성을 띠었던 것처럼 보인다. 정권에서 내세운 경제제일주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치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반

51) 한수영은 '최준호'가 바라보는 학생들의 데모를 '억압'의 힘에 의해 되튀겨나가는 '욕망의 분출구'로 이해하며, 이 욕망이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억압'에 맞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배타적 자기동일성'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최인호 소설전집 2』, 문학동네, 2010. 307쪽.

공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대비하는 상황인 것처럼 모든 국민이 단결해 총동원 체제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급격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정신의 빈곤을 가져왔으며, 사람들 간의 연대의식을 파괴했고 자본의 논리와 경쟁주의를 도입해서 서로가 서로의 타자로서 잠정적인 적대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유독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상대로 실시됐던 복장, 품행에 대한 단속과 검열은 이들을 더욱 억압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4·19를 통해 쟁취한 자유와 박정희의 경제제일주의가 내세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국부신장을 위해 다시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산업화가 가져온 부작용에서 오는 집단적 불만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인호가 동시대 다른 작가들 달리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압도해버렸음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소설화 했던 것은 1970년대 통치의 대상이 점차 미시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정치가 사적인 영역을 관리하고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통치방식으로부터 인물들이 느끼는 비판성은 최인호 소설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또 앞에서 다루었던 소설들과 일상의 지옥이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⁵²⁾ 사적영역이 개인에게 지옥이 되는 이유는 오직 반복적이고 억압적인 일상에 길들여졌을 때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에만 개인의 생이 유지될 수 있다. 사적 영역의 주요 임무인 노동과 경제가 일상을 장악해버렸을 때, 개인에게 일상은 노예상태를 지속하도록 하는 지옥이 된다.

「무서운 복수(複數)」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교련수업은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자발적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고 그들을 노예상태에 머물게 하는 처사이며 이제 권력이 본격적으로 주체의 품행까지 지도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이 개개인의 삶 하나하나에 개입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적 영역이 통치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면 ‘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도 다른 방식으로 전유된다. 이제 “폴리스는 국내질서와 국력증강 사이의 동적이지만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해주는 계산과 기술”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다.⁵³⁾

52) 동시대 작가들의 현실 인식도 비극적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인호는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현실인식에 있어서 비극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연원을 밝히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김형중, 「긴 급조치 시대의 ‘웃음」, 『견습환자』, 문학동네, 2014. 461쪽 참고.

53) 미셸 푸코, 오르트망 율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423쪽.

그러나 그것보다도 데모가 수그러든 이유로 학생들에게 은밀히 전해지는 얘기가 있었다. 즉 국가에서 어느 정도 데모를 봐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데모가 자주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민에게 어떤 불안의식 같은 것이 형성되어 오히려 선거 때 여당에게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젊은 층들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부동표인 젊은 층 표를 깎아먹게 되니까 가만있었지 일단 서거가 끝난 후엔 데모를 강경하게 막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복수(複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257쪽.)

인용문은 대학가에서 데모가 수그러들게 된 것에 대한 소문이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박정희 체제가 내세운 안보국가 담론은 상시적 위험상태와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장악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한 연설에서 국가 외부의 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정치인의 무책임한 선동, 과격한 노동쟁의, 학생 데모, 집단 난동” 등이 국가 안보 체제를 크게 약화시켰음을 강조했다. 이는 바깥으로 향하던 화살이 이제 집단 내부를 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⁵⁴⁾ 불안과 공포가 상존하는 예외상태를 바탕으로 초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를 장악했던 박정희의 통치방식이 최인호에 의해 반영된 것이며, 형식적인 데모가 국가권력과 의도치 않게 상호 협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인호가 이미 데모가 권력에 의해 제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의 허위성과 통치성의 변화로 사적인 영역이 점차 권력의 손아귀에 장악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최인호에게 저항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더욱 비판적이고 허무적인 소설을 쓸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훗날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퇴폐의 탐닉이나 바보스럽고 허무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소비, 유행, 취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대중문화의 한 지류”이면서 “동시에 민중주의가 독점해온 지배 권력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 의식”이 엮보이는 청년문화와 만나는 지점일 것이다.⁵⁵⁾ 민중문화가 권력의 지배에 맞서 적극적인 저항과 전복을 시도하려 했다면, 최인호는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권력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했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 없이

54)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 27, 2012. 117쪽.

55)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상허학보』 15, 2005. 422쪽.

당대를 장악한 권력의 양상을 비판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작가로서 소명감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 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를 최인호식의 세계에 대한 폭로이자, 거부로 본다면 그의 초기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가능성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소위 개발독재라 불리는 박정희 체제는 주권자의 초법적 권한을 동원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막대한 국부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엄청난 정신적 빈곤을 그 대가로 치러야만 했다. 게다가 개발독재가 총동원체제의 양상을 띠면서 국민들의 일상은 근면한 노동자라는 기준으로 평준화되었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은 분류되고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쓰인 최인호의 소설을 살펴봤다. 동시대 작가들과 달리 민중, 노동자 계층 등 집단의 정체성 또는 집단의 문제를 대변하는 소설을 썼다기보다는 도시공간에서 미시적인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개개인들의 파편화된 일상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 그 인물들의 일상이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 반복적이고 또 생존의 필연성을 담보로 하나의 목표만을 지향하도록 조성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최인호의 초기 소설들 중 「견습환자」, 「2와 1/2」, 「미개인」, 「가면무도회」, 「무서운 복수(複數)」를 통해 인물들의 일상과 권력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조성된 평준화된 범주의 일상에서 최인호의 인물들은 잘 적응하지 못해 아주 일탈해 버리거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대부분이 권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 스스로와 동떨어진 채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국가의 존속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정상적인 범주와 비정상적인 범주를 분할하는 규율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규율에 맞춰진 일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권태에 시달리면서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의 관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규율권력과 협조적인 생명권력의 작동방식은 개인을 ‘죽이거나 살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권력에 사로잡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권력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1960~70년대 생명권력과 규율권력, 사적 영역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양상이 대두된 이상 우리가 생명 유지의 필연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인 이상 권력의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0년대부터 70년대를 집권한 박정희체제는 다양한 권력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배와 저항이라는 구도로 바라볼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민중소설과 달리 권력을 이분화 시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인호의 초기 소설 속에는 복잡했던 60~70년대의

삶 곳곳을 장악한 다양한 권력 양상이 징후적으로 나타나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인호는 훗날의 상업적 행보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중소설 작가라는 편견이 짙게 드리워진 채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그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딱히 호응하지 않고 주류를 이뤘던 관점을 취하지 않았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 그가 신문연재 소설, 영화계 등 상업적인 활동 쪽으로 행보를 거의 옮길 무렵에야 한국 문학계에 미시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의 초기 소설들은 논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시간이 지나 푸코, 아렌트, 아감벤 등의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 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과거 1970년대 박정희의 통치를 새로 분석하면서 70년대 소설들 역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룬 최인호 초기 중단편에 나타나는 미시적인 권력 양상과 세계에 대한 비관성 등이 중기를 지나 후기까지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불리 결론지을 수 없으며, 훗날 『바보들의 행진』을 발표하면서 청년문화의 기수라는 최인호의 평가와 초기의 문제의식이 만나는 지점 역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점차 한국 사회가 소비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면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된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와 함께 최인호의 중기, 후기 소설들을 연구한다면 밝혀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이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0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황진이』, 문학동네, 2002.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문학동네, 2002.

2. 논문 및 단평 자료

강태선, 「겸허의 수행상에 대한 연구: -최인호 「길 없는 길」의 겸허 수행상 형상화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2010.

곽상순, 「서사의 반전과 욕망의 역설: 최인호의 <술꾼>과 오정희의 <저녁의 게임>」, 『국제어문』 34, 2005.

권은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9.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김병익, 「70년대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8.

김아영, 「최인호 소설의 도시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8.

김영성,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문화정치학: 최일남·이동하·최인호의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103, 2009.

김원규, 「1970년대 최인호·황석영 소설에 나타난 성과 신체의 의미」, 연세대 석사논문, 2000.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39, 2007.

김은미, 「아이러니를 통한 최인호 소설의 ‘애늬은이’ 인물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2012.

김종욱, 「근대화의 유혹과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자기정체성에 대한 불안

- 보여 주는 최인호의 작품세계, 『문학사상』 329, 2000.
- 김주연, 「70년대 작가의 관점」, 『신동아』, 1974. 11.
-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최인호, 조해일, 조선작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2013.
- 김진기, 「최인호 초기소설의 의미구조」, 『인문과학논총』 35, 2000.
- 김진형, 「최인호 소설 연구: 인물과 세계의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6.
- 김치수, 「소시민적 삶의 우울한 저항」, 『허수아비』, 열림원, 1993.
- 김치수, 「개성과 다양성」, 『문학사상』, 1982. 12.
- 김태운, 「최인호의 1970~80년대 소설에 나타난 소외된 인물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2010.
- 김택중, 「최인호의 <술꾼>에 나타난 부조리한 세계」, 『비평문학』, 2003.
- 김학균,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한센병의 은유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5, 2011.
- 김형중, 「1960~70년대의 한국과 생명정치」, 『인문학연구』 47, 2012.
- 김환옥,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연구: 성과 권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제대 석사논문, 2004.
- 나병철, 「최인호론-비동일성의 시선과 낯설게 하기」, 『현대문학의 연구』 11,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 노대원,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10.
- 노지연,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개인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2012.
- 문재원, 「최인호 소설의 ‘아동’ 연구」, 『현대소설연구』 28, 2005.
- 문홍술, 「외연적 넓이의 확장과 내포적 깊이의 부재, 그리고 70년대적인 문학」, 『한국소설 문학 대계』 58, 동아출판사, 1995.
- 박찬효, 「최인호의 1960년~1970년대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도시재현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현대소설연구』 54, 2013.
- 박필현, 「“꿈의 70년대”의 청춘, 그 애도와 위안의 서사-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6, 2014
- 백경옥, 「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대중문화통제」, 서울대 석사논문, 2012.
- 변지연, 「1970년 안팎의 최인호, 혹은 ‘반-잉여억압’적 관능과 환상: 단편 <2와 1/2>, <사행(斜行)>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8, 2004.

- 서덕순, 「'자기서사' 발견과 동일성 회복의 글쓰기: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65, 2013.
- 서종택, 「해방이후의 소설과 개인의 인식-시기원, 김승옥, 최인호를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 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8.
-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 2005.
- 송은영, 「문학과 교육: 1970년대 하위주체와 합법적 폭력의 문제-최인호의 <미개인> 과 <예행연습>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2011.
- 송은영,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 『현대문학의 연구』 52, 2014.
- 오생근, 「개인의식의 극복: 황석영 저 객지·조해일 저 아메리카·최인호 저 내마음의 풍차<서평>」, 『문학과 지성』 16, 1974.
- 안남연, 「최인호 작품과 현 사회 인식의 상관적 관계」, 『한국문예비평연구』 10, 한국 현대문예비평학회, 2002.
- 양운덕, 「미시권력들의 작용과 생명정치」, 『철학연구』 36, 2008.
- 오생근, 「개인의식의 극복: 황석영 저 객지·조해일 저 아메리카·최인호 저 내마음의 풍차<서평>」, 『문학과 지성』 16, 1974.
- 오창은, 「도시 속 개인의 허무의식과 새로운 감수성-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2, 2004.
- 오현봉, 「최인호 연구시론」, 『어문연구』 68, 일조각, 1990. 12.
- 이진, 「최인호 중단편 소설의 인물연구」, 광주여대 석사논문, 2005.
- 이보영, 「환상적 리얼리즘의 허실-최인호론」, 『현대문학』 301, 1980. 1.
-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 2011.
- 이선미,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 24, 2010.
- 이영민,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현대사회와 인간유형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재선, 「집(家)의 시간성과 공간성-가족사 소설과 집의 공간시학」, 『인문연구논집』 20,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 이현진, 「최인호 소설의 도시 공간과 주체의식 연구: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13.
-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

- 국문학이론과 비평』 5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 이희경, 「도시 문명에 갇힌 인간 소외와 상실감: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5, 2012.
- 장세진,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8.
- 정동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의미 분석: 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8, 2001.
- 정재원, 「일탈과 수락-최인호 초기소설 연구」, 『연세대 대학원 원우론집』, 1996. 2.
- 채호석, 「억압된 것의 귀환-사물화의 악몽을 묘사한 <타인의 방>」, 『문학사상』, 2000. 3.
- 최미진, 김정자, 「한국 대중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김말봉과 최인호의 <별들의故郷>을 중심으로」, 『어문학』 89, 2005.
- 최상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 최인호, 「가부장적 정치론」, 『철학과 현실』 8, 1991.
- 황도경, 「물화의 공포와 유혹-최인호의 <타인의 방>」, 『문학사상』, 1999. 3.
-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 27, 2012.

3. 국내 단행본

- 김미지, 「전쟁과 야만의 시대를 응시하는 70년대적 방법-최인호론」, 『한국 현대소설이 걸어온 길』, 문학동네, 2013.
- 김주연, 「최인호의 관능이 의미하는 것」, 『타인의 방』, 예문관, 1977.
- 김 현, 「재능과 성실성」,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00.
- 김형중, 「긴급조치 시대의 「웃음」」, 『견습환자』, 문학동네, 2014.
- 남진우, 「현대의 신화-최인호 문학의 기원」, 『타인의 방』, 문학동네, 2002.
- 성민엽, 「불화와 허위의 세계의 비극성」, 『다시 만날 때까지』, 나남, 1987.
- 소영현, 「「스스로 희생자 되기」 혹은 견딤의 서사」,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최인호 소설전집 2』, 문학동네, 2010.

4. 국외 단행본

-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 미셸 푸코, 오르트망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 미셸 푸코, 오르트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